



김경훈 의장 불출마... 대전 중구청장 선거 새국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셈법 복잡... 현 구청장과 권 전시장 측 후보 1대1 구도 예상

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이 오는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장은 당초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청장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면서 김 의장의 거취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대두됐다.

김 의장은 2일 대전시의회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당위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초 중구청장 출마를 심도있게 고려했으나 당과의 수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당 전체의 화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종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부채감이 남는다"면서 "하지만 저의 이번 결정이 불초시기가 되어 중구는 물론 대전 전체의 발전을 위한 큰 화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결정을 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명과 복당의 우려 곡절을 겪으면서도, 마음은 한시도 당을 떠나 본적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고자 진력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과 협의 해가며, 당은 물론 대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것이고, 어떤 위치에서든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민과 시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사실상 중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갑 현 구청장, 전병용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황경식 전 대전시의원이 공천 경쟁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이 확정된 정하길 충남대병원 상임감사, 바른미래당에서는 송인웅 중구지역인권센터 대표가 예비후보에 등록



하고 선거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공천 경쟁은 김 의장의 불출마로 사실상 1대1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용갑 구청장과 소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전병용 사무처장과 황경식 전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 사무처장과 황 전 의원이 연대해 단일후보로 추

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 청장과 전 사무처장과 황 전 의원 중 한 명이 경선을 치르는 시나리오가 형성된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현재 중구청장 선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청장이 현직의 프 리미엄과 인지도를 앞세워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1대 1 구도가 형성돼 치러지게 되면 권 전 시장의 후광과 조직에 힘입은

권 전 시장 후보 측 단일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한편 전병용 사무처장은 "김 의장의 불출마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면서 "앞으로 어떤 후보가 주민들에게 관심성을 갖고 지역개발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경선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 독자 간음 등 3개 죄명의 10개 항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행방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다시 조사하고 핸드폰 등 입수물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변 잠고인을 조사하고, 2차 피해

여부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대하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자치분권위, 올해 관련법제·개정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가장 '자치경찰법'을 마련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며 2019년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실시가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

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 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향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권고안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

였다.

그는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 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자치분권위원회 분회의의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된 후 관련 법률안이 차질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환기자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 출마 공식화

“당의 재건 위해 한 장의 벽돌이라도 돼야겠다는 결심”

자유한국당 이인제<사전> 전 의원이 2일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 출마를 공식화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충남지사 후보추대 결의식'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간곡하게 요청도 하시고 또 제가당의 재건을 위해 한 장의 벽돌이라도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기 위해서는 충남에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라며 "당 인력의 어려움 때문에 저에 대한 출마 요청을 많이 해주셨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분명한 입장을 빠른 시간 안에 당원과 충청도민

께 밝히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3일 오전 충남 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또 자유한국당의 공식 후보가 된 이후에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만날 계획이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등을 거론하며 "충남 선거는 우리가 잡은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이인제 카드에 보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연합 연대와' '성폭력 근절 충남 여성분부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 본인의 지역구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은 210만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충남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까지 동원해서 지지

선언하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새 물결을 위한 새로운 인재 영입과 당 혁신을 후퇴시키는 무엇이나, 올드보이로 모두가 인정하는 후보를 굳이 모시려는 이유가 무엇인냐"고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충남지사 후보 출마를 선언한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전략공천은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신의 거취 등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복기자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합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은 곧바로, 자동차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신뢰를 주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여행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변속기

변속기

변속기

변속기

軍 병사 일과후 외출, 전면 반대 49% vs 조건부 찬성 37%

<리얼미터> 군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5명은 군 병사의 일과 후 외출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방부가 군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가 끝난 후 약 3시간가량 외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시범 사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군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전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5명에 이르는 49.2%로 나타났다. '병사의 인권증진 차원에서, 최전방 제외, 비상시 통제 등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6.9%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3.9%.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병역 대상이 포함된 20대(조건부 찬성 53.0% vs 전면 반대 40.1%)에서 '조건부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은 반면, 50대(24.1% vs 67.2%)와 60대 이상(23.0% vs 51.4%)에서는 '전면 반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조건부 찬성 47.7% vs 전면 반대 43.1%)와 30대(42.7% vs 41.4%)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조건부 찬성 51.0% vs 전면 반대 36.5%)과 정의당(50.8% vs 41.5%) 지지층에서 '조건부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바른미래당(17.8% vs 76.2%)과 자유한국당(16.4% vs 65.5%) 지지층, 무당층

(20.6% vs 60.6%)에서는 '전면 반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조건부 찬성 23.7% vs 전면 반대 64.3%)과 중도층(38.6% vs 49.7%)에서 '조건부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에 이르는 반면, 진보층(50.5% vs 34.9%)에서는 '전면 반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군 병사의 일과 후 외출을 전면 반대하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조건부 찬성 27.6% vs 전면 반대 56.5%)과 대전·충청·세종(38.1% vs 55.1%), 경기·인천(36.9% vs 48.5%), 부산·경남·울산(34.3% vs 47.4%) 순으로 '전면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조건부 찬성

44.5% vs 전면 반대 47.1%)와 서울(43.5% vs 44.3%)에서는 '조건부 찬성'과 '전면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018년 3월 30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86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김경환기자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동성에 동성혼 안 돼!"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아산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에 참석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혔다. 명노희 예비후보는 "가정 파괴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 것이다"라며 "앞으로 충남교육에 앞장서 가정의 바로 서고 국가와 사회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의 지표를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23건 의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 전무개정조례안 등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2일 제232회 임시회 폐회식을 열어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 전무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김보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발판삼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도의회에 진출하고자 한다"며 "여성의 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충남도의

회에서 여성의 인권 보호와 권익 대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종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덕분에 제7대 의회가 큰 대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도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출범하는 제8대 의회가 더욱 성숙한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활발한 의정활

등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장중심 의회·정책주도형 의회를 표방하며 2014년 7월 출범한 제7대 서산시의회는 장애인과 어르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조례를 다수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수화통역과 본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평가를 받는다. 서산=김경환기자

세종시의회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 운영

상반기 총 14개교 994명의 학생 선정... 총 19회 걸쳐 운영



세종시의회 의장 고준일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민주주의의 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시의원 역할 체험 및 모의 본회의 진행을 해보는 '모의의회 프로그램'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회의 방청 및

시설 견학 프로그램'이 있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상반기에만 총 14개교 994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3월 30일 의령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19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750여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여 참가인원이 확대된 것으로 하반기 방청 프로그램 운영을 더하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일 의장·의원 해보

기, 전자표결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작년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만족도가 높은 의회퀴즈와 스피치 특강은 지속 운영한다. 고준일 의장은 "작년 시의회 청사가 조차원에서 보람동으로 이전되면서 새롭게 단장한 의회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면서, "청소년 의회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의회교실이 학생 진로 및 교과과정과 연계해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살아있는 현장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짧은 시간 동안 의회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의회회의를 더욱 잘 이해할 있도록 세종시 상징물인 파랑새를 친근한 캐릭터로 만들어 민화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는 '민화로 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책자를 발간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열려...11개 안전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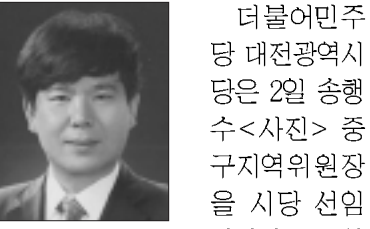


충남도의회 의장 유익환·사진은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밀접한 11개(조례8, 동의2, 관리계획1)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민선 6기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

고, 5분 정책 발언과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예고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과 정광섭 의원(태안2)은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사 관사 폐쇄 축구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무산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충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등이 눈에 띈다.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별개로 내포문화권발전특

위와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 특위, 백제문화유적세계유산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활성화 특위는 그동안 활동한 보고서를 채택한다. 유익환 의장은 "갑작스러운 도시사 결위사태로 도입들께서 걱정과 함께 도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며 "입법에서 제기된 도정거품들을 거둬냄으로써 한 치의 행정누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 정부의 국정과제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16개 항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송행수대전중구지역위원장, 선임대변인 임명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2일 송행수<사진> 중구지역위원장을 시장 선임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송 선임대변인은 6·13지방선거에 대비, 언론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이선용 현 대변인은 계속 대변인직을 수행한다. 송 선임대변인은 "시민의 평가를 받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시장 선임대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자 무거운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을 통해 공정하고도 균형잡힌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소통과 경청을 통해 민심에 귀기울이고 민심을 두려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 선임대변인은 문묘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청주지방검찰청, 전주 정읍지청 검사,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우정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더민주대전시당 6·13 선거 후보자 총 99명 공천신청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6·13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결과, 기초단체장 17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48명 등 총 99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기초단체장은 동구 4명, 중구 4명, 서구 1명, 유성구 4명, 대덕구 4명이고, 광역의원은 동구 3명, 중구 7명, 서구 9명, 유성구 10명, 대덕구 5명이다. 기초의원은 동구 6명, 중구 10명, 서구 15명, 유성구 9명, 대덕구 8명의 공천신청자가 접수를 완료했다. 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일 2차 회의를 열어 심사와 면접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고문의 (042)538-3030

1회 가격으로 최대의 입이 개제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이주은 예비후보, 대전 관광 살릴 책임자는 '바로 나'

학연, 지연, 혈연의 네트워크 없이 지역 정치에 도전장



경력단절여성의 대표주자로 학연, 지연, 혈연의 네트워크 없이 지역 정치에 도전장을 내민 이주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에

비후보(유성구 제2선거구)에게 28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 예비후보의 시의원 도전 소식을 들은 지인이 네팔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 그녀의 도전을 응원하며 당선을 기원했다. 이 예비후보는 "히말라야의 정기를 받아 넓은 엄마의 마음으로 유성의 지붕, 대전의 지붕이 되겠다"며 "주민참여예산제로 유성시장 일리기를 제안한 것처럼 여행 레저업계 동향과 관련 전문지식

을 가진 본인이 유성의 관광, 대전 관광을 살릴 수 있는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성에서의 아이 키우는 아줌마 생활과 과거 언론인 경력 그리고 대학 시절 전공인 폭넓은 정치 외교학 지식을 빌려서 유성구와 대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경력단절여성이 되기 전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여행레저전문기 "프리미엄의 온라인 관광 기획과 홍보, 뉴스기획을 맡았던 아이디어 우먼이다. 이정복기자

양승조 의원, 아산 순직 소방공무원 영결식 참석

"소방공무원 업무 환경 및 처우개선 시급히 개선하겠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일, 아산시 이순신 실체체육관에서 진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영결식에 참석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 업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순직한 3명의 소방공무원과 유가족들에

게 진심어린 유감을 전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 속으로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아 그동안 순직나 부상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공무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3명이나 되고, 부상자도 1,725명에 달했다. 매년 350명의 소방공무원이나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셈인데, 이 수치는 앞선 5년 동안에 비해 54%나 증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까지 받고 있어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3년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이 35명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수 33명보다 많은 상태며 전국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심리 조사에서도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수면 장애 등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잇따라 공무 중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를 차지하는 만큼, 그 위상에 걸 맞는 실제적인 업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리광우기자

"천안 원도심 문화·예술의 도시로 조성" 공약 발표

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 문화·예술의 도시 천안 프로젝트의 일환



박 예비후보는 "이번공약이 젊은 대학생들과 천안시민에게는 좋은 추억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지역 상인에게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천안의 가치를 2배로 실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박 예비후보는 "안서동 소재 각 대학캠퍼스 정문 ~ 천호지 ~ 도솔공원 ~ 신부동 문화의 거리까지 대학생들의 통학과 테이트가 용이한 아름다운 산책로와 자전거·전동휠 전용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안서동 소재 각 대학교 정문에서 천호지까지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길을 잘 정비하고, 자전거·전동휠 전용로 조성과 함께 학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출신 대학생들이 천안으로 머무르지 않고 단순히 수업만 듣고 떠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

을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런공약이 젊은 대학생들과 천안시민에게는 좋은 추억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지역 상인에게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천안의 가치를 2배로 실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박 예비후보는 "안서동 소재 각 대학캠퍼스 정문 ~ 천호지 ~ 도솔공원 ~ 신부동 문화의 거리까지 대학생들의 통학과 테이트가 용이한 아름다운 산책로와 자전거·전동휠 전용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안서동 소재 각 대학교 정문에서 천호지까지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길을 잘 정비하고, 자전거·전동휠 전용로 조성과 함께 학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출신 대학생들이 천안으로 머무르지 않고 단순히 수업만 듣고 떠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

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 공간에 천안시 혹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 대학가야제, 대학 동아리 페스티벌 등의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젊은이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도솔공원 활성화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도솔공원으로 산책로와 자전거·전동휠 전용로가 연계되면 자연스럽게 도솔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매머드급의 다양한 프랜차이즈 입점 유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후보는 앞으로, 낙후된 천안 원도심인 동남권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벨트 공약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경환기자

세종 종합복지관 인사 외압 의혹 결국 법정으로 가나

세종균형발전협의회, 이춘희 시장 모욕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고발

이춘희 세종시장의 '성희롱' 논란으로 촉발된 세종종합복지센터 외압 등 각종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세종균형발전협의회는 2일 이 시장을 성희롱에 의한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 시장의 부인은 수뢰죄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협의회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 시장은 세종종합복지지원센터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 센터 직원 채용에 있어서 위탁기관으로서의 지도의 범위를 넘어 공시된 직원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선거 운동원이었던 사람을 무조건 임용하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의 부인은 특정 권리 소유의 미술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시정에 팔고 적지 않은 임차료를 지급했다"며 "이춘희 시장은 이 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세종종합복지센터 수탁시설 공개제사 주지 원형 스님이 이춘희 시

장의 성희롱 논란과 시 공무원들의 인사 외압 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현재 불거진 종합복지센터 각종 의혹 규명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직접 감사를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3월 29일, 세종종합복지센터 후원사찰인 공제사 원형 주지스님이 종합복지센터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면서 "복지센터의 신규인력 채용과정에서 세종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인사를 채용하도록 복지센터에 종용하고 면접 질문이나 지원 서류 등을 사전에 유출하는 등 원형 스님의 문제제기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의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채용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 민주주의가 배제되고 인사외압으로 인한 부당 채용이 있었다면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서 "세종시 감사

위원회가 복지센터의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2015년 인사채용 과정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나, 당시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부 종결했고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신뢰도를 잃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시민 감사 위촉을 제안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인해 셀프 감사 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며,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의 직접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세종시는 오히려 의혹 해소를 위한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사원의 직접 감사에 임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안타깝게도 현재의 국면은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재량과 범위를 뛰어넘는 국가행정 차원에서의 감사 수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종시는 감사

원의 직접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종 의혹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지난 3월 22일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종합복지센터 전 센터장 A씨가 1인 시위를 통해 제기된 인사 청탁 의혹들을 무마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셀프감사가 아니라 세종시에서 자행되고 있는 채용비리를 뿌리째 뽑아내는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 청탁을 통해 입사한 인사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세종시가 부패도시란 오명을 딛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복지센터 전 센터장 A씨는 지난 3월 15일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2015년 7월 개관 전부터 해당 부서 직원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2일 '세종시 균형발전협의회'에 대한 이춘희 시장 징계'에 대한 보도 자료를 통해 "6.13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거 없는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종시 균형발전협의회가 종합복지관과 관련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동인 등 언론을 통해 반복했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법적 공방에 이르게 됐다. 제기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고 명백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복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燃燈會)'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 권익 증진 △노사 협력 증진 △일자리 창출 지원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분야 28개를 추진하기로 하고,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비전으로는 '지역 중심의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 및 사회통합 구현'을, 목표는 '더 많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률 향상 · OECD 기준 고용률 68.7% 달성'으로 잡았다.

신청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인력 양성고 고용 연계 서비스 강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 △글로벌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생태계 조성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통한 일자리 복지 실현 등으로 설정했다.

신청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과정을 통해 노동정책 및 일자리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며 "도는 올해 특히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과 100인 토론회를 통해 노동정책 분야에서 한층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공직자 대상 청탁 금지법 교육

당진시, 올해 1월 개정시행 중심시례위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청렴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당진시가 2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 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김덕만 청렴윤리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올해 1월 개정된 청탁 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김 강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음식물과 경조사비의 범위와 선물의 가액 변경 및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등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또한 청탁 금지법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

과정에서 자주 겪거나 혼동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해석으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당진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탁 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직자의 청렴의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그동안 청탁 금지 문화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주의 및 법령과 청렴 식권제 운영,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 중이다.

당진=최근수 기자

제64회 백제문화제 본격적 준비 돌입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1차회의 개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30일 제64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1차 백제문화선양위원회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백제문화선양위원회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백제문화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와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백제문화제는 '한류원조! 백제를 즐기라'는 주제와 '백제의 춤과 노래'라는 부주제에 부합한 백제문화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흥미와 창의가 결합한 주·야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백제문화제를 세계 속 문화대강국 백제를 일리는 계기를 삼고자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백제의 춤과 노래의 어울림 K-POP페스티벌,

공주캐릭터페어, 전통문화예술 해외공연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 축제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주년을 맞아 백제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프로그램으로 공산성 공복부 왕실연회 재현을 비롯해 백제유물발굴 현장 체험 등 교육·체험형 백제고을 고마촌 운영으로 행사의 격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웅진성 병사군 및 백제시대 인형배치 재현 상황극 퍼포먼스 '백투더 백제', 행사장 곳곳에서 백제의상을 입고 놀이를 즐기는 '나만의 백제의복스도리' 운영 등 놀이·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미르섬 백제저가거리 풍경을 보여주는 공간 조성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행사장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금강 '빛과 이야기'가 있는 백제능블랑

연(유등)과 미르섬 '백제별빛정원'은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금강에는 기존 유등 이외에 해상국공 백제를 상징하는 대형 황포돛배를 추가 설치하고 미르섬에는 젊은층을 겨냥한 해바라기, 핑크블리츠 등 정원 확대와 함께 로맨틱한 테마별 포토존 조성 및 백제문화 유물 상징 조명 연출로 백제문화가 살아있는 '문화대강국 백제'를 표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웅진골 맛집, 백제마을 조성 등 12개 프로그램은 관련 부서 책임제로 계획부터 운영까지 총괄해 축제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제64회 백제문화제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공주ç 부여 일원에서 열리며,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와 함께 하는 개막 축하쇼는 9월 14일 오후 7시부터 금강신관공원에서 펼쳐진다.

공주=정성범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한 자회사 출범

조폐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기대

한국조폐공사는 2일 대전 본사 강당에서 조용만 사장과 임직원, 비정규직 운영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인 컴스코 시큐리티와 컴스코투게더 출범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125명의 비정규직 운영근로자들은 운영계약 종료에 맞춰 오는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로써 조폐공사는 비정규직 '제로'를 달성하게 됐다. 컴스코 시큐리티는 특수경비의 현금수송, 컴스코투게더는 시설관리와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폐공사는 두 자회사의 대표

이사에 황근하 전 노사협력직장을 선임했다.

조폐공사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난 해 7월 곧바로 정규직 전환 절차에 돌입,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와 관계부처 협의의 그리고 제반 준비 과정을 거쳐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앞서 조폐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대화로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정규직 전환 방식 등에 대한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한 결과 지난해 12월 자회사 중심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합

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직무급에 기반한 보수체계를 마련, 지난해 29일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특수 경비원의 근무체계를 현행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등 장시간 근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했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정규직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회사 생활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일과 삶이 함께하는 행복 충남 만든다

충남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발표... "장시간노동개선 등 협력"

충남 노·사·민·정이 '일·생활 균형을 통한 휴식 있는 삶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명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의 장,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이재숙 전 안 YWCA 회장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반기 충남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장시간 노동개선, 일·생활 균형 문화의 지역 내 확산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 위해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충남 노·사·민·정은 장시간 노동이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인식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도내 노·사는 직업 방식 개선, 법정 노동시간 준수, 연차 휴가 활용 촉진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및

생산성 손실은 직무 재설계, 인력 배치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협력으로 보전해 나간다.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해 컨설팅, 직업훈련, 설비투자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충남 노·사·민·정은 지역실천단을 구성해 정책 방향 및 지역 내 현안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수사례 발굴·교육·홍보·공동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협력한다.

남궁영 권한대행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각 주체가 힘을 모아 사업장별 실천 협약 맺고, 일·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을 구성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기"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 노·사·민·정협의회는 남궁영 권한대행과 이명호 청장 등 도내 노·사·민·정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성과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 △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보고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실현 △기초 지자체 협력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 권익 증진 △노사 협력 증진 △일자리 창출 지원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분야 28개를 추진하기로 하고,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비전으로는 '지역 중심의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 및 사회통합 구현'을, 목표는 '더 많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률 향상 · OECD 기준 고용률 68.7% 달성'으로 잡았다.

신청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인력 양성고 고용 연계 서비스 강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 △글로벌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생태계 조성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통한 일자리 복지 실현 등으로 설정했다.

신청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과정을 통해 노동정책 및 일자리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며 "도는 올해 특히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과 100인 토론회를 통해 노동정책 분야에서 한층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온힘'

서산시, 26억원의 목표액을 설정... 부서별 공공구매 목표제 추진

서산시가 사회적 경제 육성과 자립기반 도모에 힘을 쏟는다. 시는 사회적 경제 가치 인식 확산과 사회적경제적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관 설치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 ▲공공구매 목표제 추진 ▲구매 우수부서 포상 등 4대 전략, 9개 중점과제, 20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또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26억원의 목표액을 설정하고 부서별 공공구매 목표제를 추진한다.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구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하는 등 경쟁을 통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김인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인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아산시-아산농협-대전공판장 출하가격보장제 협약체결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계환)이 지난달 29일, 농협경제지구 대전공판장(사장 송필룡)과 아산시농·특산물 브랜드인 아산맑은 배 출하가격 보장제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지원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과 임성동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배 비수기 판매시기의 출하가격 보장과 배 품목으로는 아산시와 단독체결이라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농협경제지구 대전공판장과의 협약체결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 폭락에도 아산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지지와 지속적 출하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출하가격보장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하가격보장제'는 협약기간과 최저가격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농산물이 거래되면 공판장에서 가격보전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출하가격보장제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손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접차 확대해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신=리량주기자

청양군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교육 청양반 운영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2일 서울 송파구 소재 ㈜MBC귀농아카데미에서 수도권 예비귀농귀촌인 맞춤형교육 인입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9일까지 8일 간의 이론교육 과정과 1박 2일 현장체험교육

및 실습 교육 총 44시간으로 귀농귀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맞춤형 이수과정으로 진행된다.

전문 강사 8명은 이론 교육을 통해 영농정책의 기초를 다져주고, 예비 귀농귀

촌인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최근 귀농한 선배 귀농인을 멘토로 지정해 정착과정의 이해를 돕게 된다.

또 구거자 시험장 현장학습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다목적용목장 등 농업창업에 도움이 될 시설을 견학하고 프리자아, 구거자, 비가림 포도, 시설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선도농가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단기간 집중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귀농귀촌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선배 귀농귀촌인과 교육생 간의 인적 네트워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교육은 2015년부터 10회에 걸쳐 300여명의 귀농귀촌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영농 지식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100여명의 창업농을 육성했다"며 "청양에서 농업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철도공단 철도 '기술 분야' 협력사 릴레이 간담회 열려

사업비 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집중적 의견 나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30일 수도권·전철·신호·통신 등 철도기술 분야 58개 협력사와 불공정관행 타파, 상반기 사업비 집행목표 달성 및 '18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발주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

다. 철도공단은 철도기술 분야 각 협력사 사장단과 '18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경기활성화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노력하는

한편,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공단은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공정추진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등 현장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조기발주 추진, 선급 지급한도 확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사 사장단은 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사례를 거울삼아 소중한 인명·재산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균 이사장은 "공단과 협력사가 협력해 상반기 사업비 집행 집행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열린 소통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가장 안전하고, 청렴한 철도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공주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요건 완화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쌀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농업인의 현장 여건에 맞게 완화한다.

시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농업인의 사업 신청 편의를 도모하고 영농의사 결정을 기를 수 있도록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지도 당초 2017년도 쌀 변동작물재배를 받은 농지였으나, 쌀 변동작물재배를 수형하지 않았더라도 재배 사실이 증명될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지난해 쌀 적정생산에 위해 자발적으로 타 작물로 전환한 면적 전체를 올해 타작물재배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 단가의 50%가 인정된다.

지원 단가는 작물별로 ha당 100만원

400만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작물은 280만원이다.

또, 그동안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제외 작물이었던 인삼이 지원대상 품목으로 완화에 따라 올해 배 대신 인삼을 재배한다면 타작물재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판매처 확보에 어려워하는 농업인을 위해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구매하고, 수매 단가도 4100원/kg(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kg으로 추가 인정된다.

정홍숙 농정유통과장은 "그동안 지원요건이 안되거나 재배작물 결정이 늦어져 신청하지 못했던 지원요건 및 기간이 완화된 만큼 쌀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홍성군 유기농 감자 적합 품종 선발 연구 시작

홍성군과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26일 광천읍 매현리에서 오랜 기간 유기농업을 해온 최영상 농가에서 홍성지역에 적합한 유기농 감자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연구를 시작했다.

유기농 감자는 사계절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가정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식재료로 수요가 많다. 하지만, 유기농 감자는 재배 중 병해충 관리가 어려워 매년 유기농 감자 재배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자에 발생하는 역병이나 더듬이병 등 고집적인 병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농 감자 재배 농가들이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대서, 대지, 조원, 조풍 등의 12개 감자 품종을 연구해 활용성이 높은 병해충 저항성 감자 품종을 선발하고 병해충 중

합관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날 모인 농업기술센터 및 국립농업과학원 직원과 농업인 등 10여 명은 이번 시험 연구의 첫 시작으로 농가에 방목해 직접 감자를 파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촌진흥청의 유기농 감자 연구는 유기농업 일반자인 우리 홍성군의 유기농 감자재배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우리의 노력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2월 클로렐라 배양액을 이용한 친환경 감자를 최초 수확하며 많은 농업인들의 이목을 끌은 바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를 통해 유기농 감자 적합 품종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로렐라를 활용한 감자의 품질 향상 기술도 함께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홍성=김정한기자

아산시 4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지급

아산시는 2018년 4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단독가구20만6050원, 부부가구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20만9960원, 부부가구33만592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독·부부1인 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2만원에서 최대 월20만9960원까지(부부2인 수급가구는 월4만원에서 최대 월33만5920원) 지급되며, 이는 전년도 소비자가가 변동률(1.9%)을 반영해 3910원이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28), 9

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3월초에 밝힌바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131만원, 부부가구2096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만65세 연령도래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외 기초연금 미신청 어르신들의 신청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투데이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청양군, 2018 직무성과 계약 체결

부군수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30명 성과계약 맺어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일 상 황실에서 강준배 부군수를 비롯 한 실·과장 및 읍·면장 등 5급 이상 공무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직무성과 계약 체결식'을 갖고 군민과의 약속 실행에 전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성과 계약은 군민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167개의 성과 목표 과제를 정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일 뿐 아니라 더 큰 비전 제시와 실천으로 창의적인 업무혁신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뤄졌다.

주요 중점 과제로는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 ▲인

구가 증가하는 행복한 부자농촌 달성 ▲전략적 고용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치별 없고 공정한 나눔 복지 구현 ▲인재육성을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 ▲다목적 실내 체육관 완공 ▲철강산 3대 권역 관광개발 ▲청양읍 도시 재생사업 완료 등이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직무성과 계약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

국토부, 연내 신혼부부·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 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 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03년 주거복지과(본부), '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별도 조직)이 설치된 이래, 본부 1개과이던 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09년), 뉴스테이추진단('16년)으로 분산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에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주택도시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이던 주거복지기획과(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중장기 주거 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 호의 공공임대와 15만 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

리와 운영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와 정책 등을 맡게 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일(월) 오후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주거정책심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 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거복지정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공직자청렴

· 지경 결의대회 실시

아산시는 2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청렴 자경결의대회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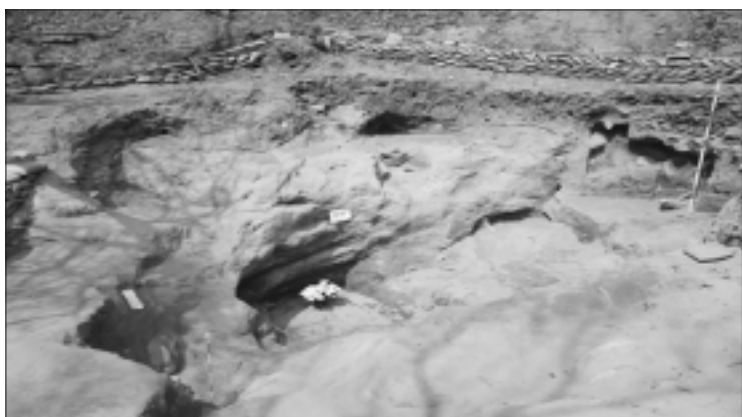
이번 결의대회로 전 직원이 함께 청렴을 일상화해 부패 없는 깨끗한 아산을 만들어 가고자 청렴 의지를 다짐했다.

이어, 한국청렴사학연연구소 김원인 강사의 '반부패·청렴실천과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사례 중심 특강을 실시하며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투명한 조직문화로 나아가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수습 완료

아산시, 총 38일간 유해발굴 진행...유해 모두 수습



아산시는 배방읍 중리 산86-1번지 일원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개토제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총 38일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유해발굴을 모두 수습했다.

수습유해는 모두 총 150여구로 비너 60여개, 구슬, 종모양의 장난감 등의 유품으로 보아 희생자 상당수가 여성과 아이가 포함된 것을 파악했다.

매장 장소 형태는 일제 시대 폐금광이 토사에 의해 매립된 웅덩이 형태이며 이 웅덩이에 유해들

이 층층이 발견된 것을 보아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살해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번 수습된 유해는 아산공설방안당으로 이관해 4월~5월 2달 여간 유해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희생자 수, 성별, 연령, 피해당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향후 유해감식이 완료되면 보고대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소관 '세종시 추모의 집'에 유해를 봉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봄바람보다 훈훈한 봉사활동 바람

단국대학교,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펼쳐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가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며 훈훈한 봉사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단국대 사회봉사단과 교직원 봉사단은 지난 31일 천안시 북면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잡아들다운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학생과 교직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단국대 봉사단은 봄철을 맞아 장문 뒤편 및 시설 환경 정화를 비롯해 산책 보조와 체육 활동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시설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점자와 그림, 음성 시스템이 지원되는 1백만 원 상당의 축지도를 기부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봉사를 기획한 김재필 단국대 교직원봉사단 회장(차과대학부속치과병원 행정부장)은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참된 나눔을 실천하는 대학 문화 선도와 함께 이번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 단국대의 구성원들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단국대 사회봉사단과 교직원 봉사단은 지역사회 환경 정화, 수해복구 봉사,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며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천안=이종호기자

'특허정보, 이제 QR코드로 찍어보세요'

QR코드 통해...특허 내용, 등록상황 등 쉽게 확인 가능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QR코드를 통해 특허 내용, 등록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원인은 제품에 특허가 적용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해 특허등록번호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무료 지식재산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QR코드를 복사하여 활용이 가능하고, 제품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키프리스에서 등록현황, 권리범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허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키프리스에 입력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서 특허의 상세 내용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뿐만 아니라 특허청이 발간하는 간행물에도 QR코드를 표기하여 온라인으로 내용을 보고 검색하거나, 원문 파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QR코드와 연결된 웹주소

가 변하더라도 바뀐 주소를 자동으로 찾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최희운)과 협력하여 국제표준식별자(DOI)를 적용하였다.

2018년 4월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QR코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상표·디자인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허 등 산업재산권 공보에도 QR코드를 표기하여 등록일자, 행정정보 서류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봉관기자

'도심의 꽃섬 테미공원, 벚꽃에 취해보세요!'

6일 저녁 7시 개막행사로 3일간 벚꽃향연 펼쳐



대전 중구 대흥동 테미봄꽃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종훈)는 6일부터 3일간 '제15회 테미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산 전체가 벚꽃으로 둘러 쌓여 있는 테미공원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꽃을 찾은 많은 시민이 함께하며 중구의 대표 봄 축제로 자리 잡아

왔다.

추진위원회에선 3일간 맛있고 저렴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공연, 아트프리마켓, 어린이 봄꽃그림전시회 등 축제를 찾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를 마쳤다.

이번 축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역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으로 지난 축제 수익금 중 500만원도 김장 나눔, 밑반찬 전달 등 이웃사랑 나눔에 사용했다.

임종훈 위원장은 "6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개막공연에 많은 시민이 찾아 축제를 즐기시길 바라며 축제와 함께 테미공원이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 찾는 봄나들이 명소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한밭대, 한밭사랑 안전지킴이 순찰대 발대식

학생거주 원룸 밀집지역의 순찰 통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학생활동 선도 위해 마련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 송하영가 2일 오전 11시 30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한밭사랑 안전지킴이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밭사랑 안전지킴이 순찰대는 한밭대와 유성경찰서(서장 이동기)가 협력해 학내 취약지역 및 학주변 학생거주 원룸 밀집지역의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학생활동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지킴이는 학생자치기구 임원 등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2개 조를 편성했으며, 2018년 12월

말까지 매일 3시간씩 교내외를 순찰하고 월 1~2회는 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함께 순찰을 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송하영 총장과 이동기 유성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밭사랑 안전지킴이 참여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영 총장은 안전지킴이를 대표해 김태수 학생(한밭대 총학생회 부회장)에게 경광봉 등 안전장비를 전달했으며, 유성경찰서에서는 순찰복 20벌을 선물하며 격려했다.

이어 송하영 총장은 "우리 대학은 기본을 바로 세워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대학"임을 강조하고 "한밭대 학생으로서 질서를 지키고 대학내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밭대 학생들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에는 학생(신소재공학과 4학년)은 "하간에 수업을 마치고 혼자 버스정류장까지 나가려면 보안등이 켜져 있어서 무서운 때가 있다"며 "학생 안전지킴이와 경찰관이 함께 학교를 순찰한다고 하니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dajeontoday.com

직·공장새마을운동충청남도협의회

Y-SMU포럼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직공장새마을운동충청남도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당진시 원당 2동 최대순(86세)노부부(부인:치매)택에서 직장새마을당진시협의회 회원 15명과 충남 Y-SMU 신성대포럼 회원 15명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재능기부활동을 펼쳤다.

최대순 노부부는 현재 부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가정으로 장호 및 방화문, 도배, 장판을 교체해

중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경용 회장은 "2018년 사업으로 직장지도자 각각의 재능을 살려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활동 전개와 직장대·그룹별 봉사활동 등 여러 목적, 직장한가족운동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전국 고교 동아리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충남대-KAIST 공동개최... 전국 고등학교 동아리 대상

충남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18년 11월 3일,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SW중심대학과 함께하는 제3회 전국 고등학교 동아리 소프트웨어(SW)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충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과 한국과학기술원 SW교육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SW를 통한 고등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및 협업 능력을 경연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고등학교 SW동아리 활성화 및 SW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현재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특목고(외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영재고, 체육고 포함) 등 모든 유

형의 전국 고등학교 교내 SW 관련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3~5명 단위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 프로젝트의 주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상생활 속의 아이디어 실현'으로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참가신청서와 소프트웨어개발 계획서를 7월18일(수) ~ 7월26일(목)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회 참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 및 접수 방법은 충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홈페이지 (http://wise.cnu.ac.kr)와 한국과학기술원 SW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ekaist.kaist.ac.kr)에 안내되어 있다.

이정복기자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 온양3동 벤치마킹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완식, 민간위원장이영미)가 지난날 30일, 온양3동 행복키움지원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예산소방서 삼교읍여성의용소방대

소화기사용법 보급 활동 나서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 삼교읍여성의용소방대가 지난 1일 삼교읍 두리3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마을이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용 물소화기세트를 활용해 소화기사용법 보급 활동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삼교읍여성의용소방대 김한순 대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용 물소화기기를 활용해 마을사람들이 직접 소화기를 작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마을주민은 "실제로 소화기를 사용해 볼 기회가 없어 소화기 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생소했는데 이렇게 교육용 소화기를 활용해 실제로 소화기를 사용해보니 어렵지 않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삼교읍여성의용소방대를 비롯하여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주기적으로 담당하는 마을별로 마을담당제 활동을 하며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예산=양성업기자



대전농협, 양파팔아주기 앞장서다

8.0톤의 양파 구입... 각 영업점 고객 사은행사 사용

NH농협 대전영업본부는 2일부터 (월)(4일)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8.0톤의 양파를 구입해 농협대전본부의 각 영업점에 고객 사은행사로 쓰인다.

올해 양파생산량은 평년에 비해 1만5천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는 일부물량을 시장격리를 하는 등 양파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농협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량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서천소방서, 화재피해 최소화 위해 실시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청명·한식기간 중 산불 등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청명·한식을 맞이해 성묘객과 상춘객의 증가에 따른 화재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사고 예방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실시한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123명, 의용소방대원 662명, 소방장비 38대를 동원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마을 방송 실시 등 산불조심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니 성묘객분들은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천=김태성기자



충남동부보훈지청, 4월 위령탑 참배 실시
채순희 충남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천안시 보훈단체장들이 2일 천안시 유량동 태조산 공원에 있는 천안인의 상 위령탑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께 참배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눈비 올때보다 추울때 더 많이 발생”

지난 3년간 보험사의 사고 통계와 기상청의 기후 통계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보험사의 사고 통계와 기상청의 기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수량과 적설량은 차량 사고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기온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간의 자사 사고 통계와 기상청 기후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온 및 강수량, 적설량 등의 변화에 따른 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기온의 변화가 차량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외 요소들의 변화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겨울철로 갈수록 사고건수의 증가 폭은 커졌으며, 특히 0도 이하부터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사고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다. 0도에서 영하 1도로 떨어질 때 사고 증가율은 1.9%였으나 영하 10도에서 영하 11도가 되었을 때는 0도 대비 25배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지어 영하 15도에서는 0도 대비 100배 이상 증가했다.

기온이 떨어질수록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대중교통 이용 감소 및 자가차량 이용빈도 증가, 도로의 결빙에 따른 미끄러짐 사고 증가, 타이어 공기압 감소 시 기온 어짐 현상 및 타이어 파손에 의한

사고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사고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강수량의 경우, 80mm 이상일 때 사고빈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수량 증가 시 사고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뿐 기온의 경우처럼 사고 빈도가 점차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빗길 운전으로 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속 운전을 하거나 운행 자체를 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온, 강수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설량을 분석한 결과, 사고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국내에는 드물지만 적설량이 80cm를 초과할 경우 운행이 불가해 오히려 사고 빈도가 감소하기도 했다.

해의 연구 사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빙기에서 수행한 모델링 결과 온도와 차량사고는 매우 연관 있으며 온도가 낮아질수록 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하의 온도에서는 사고발생건수의 증가 폭이 더욱 커지는 등 앞서 KB손해보험이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김태성기자

부여소방서, 위험물 운

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지난 30일 위험물 차량 이동이 많은 로터리와 고속도로로 휴게소 등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위험물 운송차량 등은 이동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워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유통 과정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에서 운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두검사에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 차량 등을 집중 단속했다.

김우태 예방팀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위험물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아산시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5~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해 8~9월에 환자 집중 발생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사포부두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분리(2018년 3월 28일)되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해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

올해는 해수의 평균 수온이 작년보다 높고, 3월부터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되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비브리오패혈증 환자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5℃ 이하로 저온보관하고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며 ▲조리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충분히 익혀 조리하고(85℃ 이상 가열) ▲날 생선 및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는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시 보건 관계자는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중독자, 면역억제제(항암제투여자, 백혈병환자, 장기이식환자 등)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할 경우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동 대상자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예산경찰서,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총격기 등 일체의 무기류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2018년 상반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4.1.부터 4.30.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총격기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 및 행정적임을 일

체 묻지 아니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주진우 서장은 "자진신고 종료 후 불법무기류 소지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강력 단속 할 예정"으로 반드시 자진신고 하여 불법무기 소지로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하였다. 예산=양성업기자

조치원 정수장 변신 "에코예술놀이터, 정수장에서 놀자"

지난 31일 어린이 동반한 가족단위 봄나들이 행사 개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은 지난 31일 조치원 정수장에서 안전한 봄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에코예술놀이터, 정수장에서 놀자!'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날 행사에는 동요오케스트라

와 미술공연, 놀이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엄마야빠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자연배움센터 등 생태현장인 정수장 마당 곳곳을 누비며 자연과 예술을 배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세종=김정환기자

대덕구 송촌동,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총력'

저소득 취약계층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송촌동(동장 정어택)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과 중증장애인 중 단독 및 노인부부가구

등 총 302가구 552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월 중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에서 도출된 욕구현황을 기초로 정서지원의 필요로 하는 노인가구에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을 보

완해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생필품 및 식자재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는 쌀(30세대)과 라면(28세대)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사업',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등 타기관의 복지사업과도 연계했다.

향후 송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독지가 및 단체의 후원물품을 증빙되지 않게 배분할 예정이며, 각종 자생단체 봉사활동과도 연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국세청, 서산세무서 공동 홍보 캠페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한 홍보



서산세무서(서장 한인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지사장 김경식)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산 해미읍성에서 개최하는 수석, 분재 및 서화 축제인 '제1회 내포자연문화예술제'에 맞추어, 예술제 참여자 및 내방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공동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 자리에서 양 기관은 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자금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와 성숙한 납세문화와 공평과세를 건인(牽引)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세무·건강보험 분야 내방자의 니즈(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전문 상담직원(13명)으로 공동 홍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통해 세무와 건강보험이 통합된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박봉관기자

두계장터 4·1 항일 독립만세운동



광복회 계룡군산연합지회가 주최하고 계룡시 보존단체협의회와 두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제99주년 3·1절 정신을 계승하고자 '제5회 두계장터 4·1 항일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지난 1일 오전 두마면사무소

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진 대전지방보훈청장, 최흥복 계룡시장, 광복회 및 보존단체 회원, 계룡시민을 비롯한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송병배기자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신축빌라에 관심

<벼룩시장 부동산>신축빌라로 눈길 돌린 이유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집값' 꼽아

미디어월이 운영하는 벼룩시장부동산이 이사를 계획중인 성인남녀 5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밝혔다.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신축빌라 분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축빌라로 눈길을 돌린 이유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집값'을 꼽았다.

설문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사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8.9%가 집값을 꼽았다. 이어 교통(19.7%), 지역·위치(15.4%), 생활문화 인프라

(14.8%) 순으로 이어졌으며, 교육환경이라는 답변도 11.2%로 나타났다. 이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채널로는 부동산중개업소(38%)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부동산정보사이트(31.8%)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생활정보신문(16%),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12.7%), 부동산 전문지(15%)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이어 해당 채널을 활용해 이사 관련 정보 수집 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주변 정보 부족(28.3%)을 1순위로 꼽았다. 사진과 다른 실물이라는 답변도 22.5%로 높게 나타났으며, 허위 가격 기재(14%), 과도한 중개수수료(12.1%), 세심한 컨설팅 부

족(11.6%), 낚시성 매물(10.6%)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사 시 신축빌라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이 신축빌라 분양·매매에 관심을 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집값(35%)이었다. 이어 리모델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32.2%), 가격대비 넓은 평수(20.2%), 저렴한 관리비(8.1%), 구건물 대비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4.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이들 중 42.3%는 신축빌라 허위매물, 허위 가격 등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진

과 실물이 전혀 달랐다', '온라인으로 보고 방문했는데 몇 시간도 안돼 나갔다고 하며 다른 집을 권유했다', '평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예약 후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 작은 평수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둔 것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벼룩시장부동산은 국내 신축빌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12월 신축빌라 전문관을 론칭했다. 허위매물의 철저한 관리로 신뢰도 높은 매물 정보와 소비자 맞춤형 컨설팅, 계약관리 등 신축빌라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벼룩시장부동산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정복기자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실시

충남 남부평생학습관, 학습관 소속 직원 200여명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관장 김용진)은 2일 평생학습동 제5강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학습관 소속 직원 200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 ▲지위 이용 부당 영향 행사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 SNS 등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이행 등을 다짐했다. 행동강령 책임관인 이항재 총무부장은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계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사전에 지도 및 방지하여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쟁률 29대 1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

20대 970명 지원으로 과반 넘어, 20~30대 지원율 92.7% 차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8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2018.3.26~3.30) 결과, 교육행정직(일반)을 포함한 8개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52명에 1,510명이 지원해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경쟁률은 지난해 '25.82대 1'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의 연령대는 19세 이하 42명

(2.8%), 20~29세가 970명(64.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430명(28.5%), 40세 이상이 68명(4.5%)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접수자는 18세(8명)이며, 최고령자는 55세로 교육행정(장애)에 접수했다. 응시자 중 남자는 499명(33.1%), 여자는 1,011명(66.9%)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 지원자가 33.8%p 많았다.

또한,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3.26~4.2)에 취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개인별 응시표는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edurecruit.dje.go.kr)에서 수험생이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5월 19일 실시된다. 필기시험 장소는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고시/공고"를 통해 5월 1일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홍성 여고, 참학력

특공대 봉사단 열기 후끈

충남형 혁신학교인 홍성여고(교장 심상룡)의 특별한 학생봉사단인 참학력 특공대가 2018학년도 첫 활동을 시작했다. 특공대라는 이름의 명칭은 '특별하게 공부 봉사도 사범(교육) 대학 가지'에서 착안해 지은 이름으로 홍성여고 학생들 중 장애 교대 및 사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조직한 교육 봉사단이다.

홍성여고는 학생들에게 진학진로활동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근래 놓여온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 대해 참학력 교육 봉사도 사랑 나눔 실천 및 마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계획서, 지원동기, 면접 등을 통해 2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봉사단을 조직했다.

홍성여고는 활동우수자에게 학교장상을 시상하고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에 특기 사항으로 기재하여 진로진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홍성=김정현기자

아산시 보건소, 어르신

'건강한 치아' 선발대회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제73회 치아의 날을 앞두고 치아의 중요성 인식과 건강한 구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코자 건강한 치아어르신 선발대회를 연다. 구강보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총 8명의 견치어르신을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접수기간은 4월2일(월)부터 30일(월)까지 한 달간이며, 장소는 아산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이며 선발 일시는 다음달 2일(수) 오전9시부터 12시까지이다. 심사항목은 24개 이상 자연치아, 건강한잇몸상태, 가지런한 치열을 가진 상태, 정상적인 교합을 가지신 어르신이며 신청은 아산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041-537-3301)전화 접수 또는 방문접수로 하면 된다.

시 보건 담당자는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평생치아 건강관리의 중요성인식, 노년기 치아결손 예방 및 치아의 잔존율을 높이고 치주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지출 절감에 기여하고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세종시교육청, 2018년 제4기 학생기자단 발대식 개최

교육정책이나 사회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 대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의 시각으로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고 교육정책이나 사회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2018년 세종시교육청 학생기자단 발대식'을 지난 31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발대식 행사는 위촉장과 기자증 수여에 이어 교육감과의 공감대이슈를 통해 학생들의 고민, 관심사, 활동계획 등

새로운 질문에 답하면서 여러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말하고 들어보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생기자단 모집에는 지난 3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총 128명의 관내 중·고등학생이 지원했으며, 자유기사와 자기소개서 서류심사를 거쳐 중학생 29명, 고등학생 26명, 총 55명을 최종 선발했다.

학생기자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8년 1월까지 10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월 1건 이상 취재 기사를 작성하고, 3월 31일, 4월 7~8일 3일간 진행되는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하는 학생기자단 역량강화 연수 '뉴스제작캠프'에 참여한다. 세종시교육청 제4기 학생기자단의 기사는 세종시교육청 공식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sej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정복기자

예산교육지원청,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실시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선거관련 규정 준수 등 다짐 시간 가져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은 지난 2일(월) 예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무원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60여명은 이날 선거중립결의 대회에서 선거관련 행위 금지 및 엄정중립,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하고 선거관련 규정 준

수 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행동강령책임관 교육을 통해 김서구 행정과장은 "이번 선거가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중립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예산=양성업기자

'제20회 우체국예금보험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이달 18일까지 전국 우체국서 접수



충청지방우정청은 어린이의 예술적 재능 발굴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해 '제20회 우체국예금보험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20회를 맞이했으며, 작년에는 2만8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어린이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대회이다. 참가자격은 '초등학생'이며, '우체국예금보험, 편지, 택배, 집배원 등 우체국과 관련된 소재나 사랑·행복과 관련된 소재' 중 하나의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우정사업본부 또는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내려 받아 8월지에 그린 그림과 함께 이달 18일까지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6월 7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접수된 작품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해 대상 2명, 최우수상 10명, 우수상 20명, 장려상 100명 입선 2000명 등 총 2132명이 수상하게 된다. 송병배기자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장 및 시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은 우정사업본부장 상장 및 시상금 50만 원, 우수상은 우정공무원교육원장 상장 및 시상금 20만 원, 장려상은 지방우정청장 상장 및 시상금 10만 원을 수여한다. 이 외에도 수상자 전원에게 기념메달 및 기념품, 작품집을 만들어 준다. 또한 대회 참가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수상자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장려상 이상 수상자를 모아 작품집을 발간해 전국 초등학교와 우체국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홍만표 충청우정청장은 "이번 제20회 우체국예금보험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재능 개발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꿈과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원당중, 평화나비 동아리 특별한 활동

평화나비 동아리, 위안부 할머니 위한 뜻깊은 행사 열어



당진 원당중학교(교장 정용섭) 1·2·3학년 약 3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평화나비 동아리'가 있다. '평화나비'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구성된 동아리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널리 알리고 전쟁, 평화, 역사문제도 함께하며 다양한 추모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점심시간에 '평화나비' 학생들이 원당중학교 급식실 앞에서 특별한 활동을 벌였다. 동아리 학생들 스스로 팻말을 제작해 위안부 알린



충남교육청,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집중'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내 각급기관과 학교의 문제점인 교육비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깨끗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예방감사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5개 권역(홍성, 천안, 공주, 논산, 서산)으로 나누어 교감, 행정실장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보령교육지원청,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 조성 위한 성폭력예방교육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은 지난 30일 보령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보령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18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신미희(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장)강사를 초청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성폭력·성희롱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 특 정 ●●●

제주 4·3추념식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3일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 공원에서 열리는 「제주 4·3추념식」에 참석.

홍성군지회장 이·취임식



김석환 홍성군수= 3일 오전 11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사)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세종시 도로명주소 퀴즈풀이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퀴즈풀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시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진행되며, 방문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객관식 5문제를 풀면 되고, 참여자 중 매일 2명을 추천해 홍보물품 대용량 보조배터리(1000mAh)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매일 10일경 시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개별 문자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더 잘 이해하고, 도로명주소가 쉽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정환 기자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사회복지시설의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직원이 직무교육, 경·조사, 연차휴가 등으로 단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시설 종사자의 휴식권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36개(생활시설 12개소, 이용시설 24개소로, 종사자 5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 시설과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 인수는 1회 5일 원칙으로 최대 10일까지, 평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지원되며, 휴일(토·일) 및 야간시간은 제외된다. 올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국비 70%, 시비 30%로 총 52,491천원이 투입된다. 세종시에서 사업을 총괄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충청남도사회복지사업회(회장 강문수)가 대체인력 모집·배치 및 예산 집행 등을 시행한다. 세종시 김장훈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성과를 보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사회복지사업회(070-7123-5593)로 하면 된다. 세종=김정환 기자

“진달래꽃 수놓은 숲길 걸으며 봄 즐겨요”

제4회 내포문화숲길 걷기축제... 면천진달래민속축제 연계

‘제4회 내포문화숲길 걷기축제’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당진시 면천읍성 서문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걷기축제는 면천진달래민속축제와 연계해 면천읍성 일원 백제부흥군길 8km 구간에서 각각 2시간·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총 2개 코스로 진행된다. 걷기노선 1코스는 면천읍성을 출발해 몽산정상을 다녀오는 6km 구간이며, 걷기노선 2코스는 면천읍성에서 산수유꽃길, 면천향교를 거쳐 다시 면천읍성으로 돌아오는 8km 구간이다. 참가자는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진달래와 산수유가 곱게 피어나는 숲길을 즐기며 천천히 걸으면 된다. 면천읍성 행사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두견쥬·진달래꽃차 시음 및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재미를 더 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 원으로 지원되는 숲길 걷기 체험과 함께 기념품, 간식,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5일까지 (사)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 (www.naepotrail.org) 또는 사무처 ☎041-338-0773를 통해 할 수 있다. 내포문화숲길은 내포문화권의 주축인 가야산을 중심으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의 역사·문화 유적과 생태자원, 자연 경관을 이어 조성한 315.3km 길이의 숲길 구간이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041-338-0773를 통해 할 수 있다. 내포문화숲길은 내포문화권의 주축인 가야산을 중심으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의 역사·문화 유적과 생태자원, 자연 경관을 이어 조성한 315.3km 길이의 숲길 구간이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예산군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완료

예산군이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유아 및 어린이 인프라 구축, 노인어르신 문화복지 증진, 아줌마·키즈맘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은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지원센터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함께 시설할 계획으로 앞으로 센터와 협업을 통해 상시근무 인력 확보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및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유아 및 어린이, 키즈맘 시설을 한 장소에 구상해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제

안해 선정됐다.

사업은 ▲유아·어린이 인프라 구축 ▲아줌마·키즈맘 공동체 활성화 ▲어린이 놀이터 및 옥외 공간등을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과 행복주택건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인구유입 및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양성업기자

행복청 성과 창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앞장

성과 위주 조직문화 정착

행정 중심 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2017년 행복청 부서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부서에 도시정책과, 우수부서에 사업관리총괄과와 도시성장추진과를 선정하고 4월 2일(월) 시상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2015년부터 성과평가 우수부서 선정 제도를 마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해 왔다. 우수 부서는 외부위원(20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주요정책부문, 정책홍보·예산집행·청렴노력도 등 공동업무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였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도시정책

과는 해밀리(6-4생활권)에 각종 교육시설과 주민 생활공간을 획기적으로 통합 설계하여 공동 통합 주민공동시설(학학커뮤니티) 단지가 조성되도록 계획했으며, 합강리(5-1생활권) 전체를제로 에너지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구성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 차별화된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한 점을 크게 평가받았다. 우수부서인 사업관리총괄과는 관계기관 합동 종합사업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현안·쟁점 등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2단계 도시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행복도시'를 10주년 글로벌 학습대회(2017년 5월)를 개최하여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기법과 우수사례를 전

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시성장추진과는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통해 대학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과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의 행복도시 입주 업무협약(MOA) 체결(2017년 12월)과 설립준비비 확보,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한 성과가 크다는 평을 받았다. 행복청 김우중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복청 성과평가 제도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 기자

충남도 '위험도로 개선·도로 정비' 우수기관 선정

도로 유지·관리 적극 추진 인정 받아

충남도는 '2016 지역개발 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 실적 평가와 '2017 도로 정비' 추진 실적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 표창과 함께 지원금 5000만 원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 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점검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방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 추진 성과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 및 평가에서 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보수, 도로 표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도로 시설 정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이번 영예를 안았다. 박희주 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 등 도로 유지·관리

를 적극 추진해 온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포장, 구조물과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지방도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정비 등에 50여 원을 투입한다. 또 교량 및 터널 붕괴 등 재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49억 원을 투입, 교량 431개소와 터널 13개소에 대한 점검 및 안전 진단, 지진 대비 내진 보강 사업 등을 펼친다. 김정환 기자

까지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 백제부흥군길·원효 깨달음길·내포천주교 순례길·내포역사 인물길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내포문화숲길을 조성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걷기축제는 면천진달래민속축제와 연계해 걷기행사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 꽃으로 수놓은 내포문화숲길에서 완연한 봄기운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예산군은 4월부터 2개월 간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입수된 77종의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및 한부모가족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을 정비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회신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 확인 및 소명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에 반영하며, 반영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 중지 및 급여변동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회신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 확인 및 소명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에 반영하며, 반영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 중지 및 급여변동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종지 및 급여 환수 등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탈락되는 대상자는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연계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충남도 '자살예방주간' 선포

충남도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를 '자살예방주간'으로 선포하고, 도내 1개 시·군에서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자살예방주간은 봄철(4~5월) 높아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해 매년 운영 중이다. 도는 오는 4일 도청 1층 로비에서 '생명사랑 선포식'을 열고,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의 장을 열 계획이다. 고인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자살은 한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라며 "이번 자살예방주간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행복도시 추가이전기관 신청사 기본구상 용역 시행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용역수행자로 최종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추가 이전 기관 등이 입주할 '행복도시 추가 이전기관 신청사'의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2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2월 27일 입찰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용역수행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 관련법령, ▲이전

신안주씨 문중의 족자·고서
홍성 275점 홍주역관 기탁받아



홍성군 홍주성역사관이 지난 3월 30일 홍동면 신안주씨 장주사 소장유물 총 275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유물은 족자류 15점, 전적류 220점, 고문서류 38점, 책계 2점 등으로 이 유물들은 조선 후기 신안주씨 문중의 유교적 가풍과 교육 방식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종친회장 주내영 씨가 개인적으로 모았던 고서 9점도 함께 기탁했다. 신안주씨는 남송 시대의 대학자이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후손으로, 주자의 증손 주잠(朱潛, 1194-1260년)이 고려 때 몽골의 침입을 피해 우리나라에 정착하며 이어서 왔다. 그중 홍동면 윤월리에 터를 잡은 지파가 바로 홍성의 신안주씨이다. 기탁유물 가운데 족자류는 주자의 글씨를 판각하여 찍어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는 특이하게 중국 남송시대 충신으로 이름 높은 악비(岳飛) 장군의 글씨를 모사한 족자도 남아 있다. 전적류는 문집인 '매산집'을 비롯하여 사서삼경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했던 신안주씨 문중의 학구열을 알 수 있다. 고문서류는 주자의 사당인 장주사에서 작성한 의례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까지의 제사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군 관계자는 "신안주씨 문중 유물이 홍주성역사관 전시 및 홍성 지역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차후 연구조사를 통해 홍성시민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정환기자

주민 화합·친환경 아파트 찾습니다

그린홈 으뜸아파트 8월 31일까지 공모신청 받아

충남도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그린홈 으뜸아파트'를 선정기로 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그린홈 으뜸 아파트 선정은 아파트 입주인간 화합과 공동체 문화조성, 에너지 절약실천,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 중이다.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5년 이상인 아파트 단지로, 공모 참여 신청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체 활성화 단계 지원 등의 평가 항목을 강화해 선정할 예정이다. 변경된 평가 항목을 준수해 신청해야 한다. 도는 오는 9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현지 평가를 거쳐 분야 부문 3개 단지, 임대 부문(공 또는 민간) 1개 단지 등 총 4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린홈 으뜸 아파트 투명성 등 관리 일반 △안전 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시설 유지 관리 △주민 자율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현장 평가 등 5개 분야다. 그린홈 으뜸 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인증서, 인증패와 함께 분양 부문은 3000만 원의 시설개선선 및 공동체활성화 시상금을, 임대 부문은 2000만 원의 공동체 활성화 시상금을 지원한다. 또 분양 부문 3개 단지는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공모에 추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린홈 으뜸 아파트 공모 사업은 도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투명하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라며 "도내 공동주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려라,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우리/동/네

당진시 해나루쌀 소비촉진 캠페인

지난 주말 행담도 휴게소서 해나루쌀과 쌀눈쌀 나눠주며 홍보행사 진행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당진 쌀농사연구회(회장 임종섭)는 지난 3월 31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내 행복장터에서 당진 해나루쌀 소비촉진 행사를 열었다.

센터와 연구회는 이날 행담도 휴게소를 찾은 이용객들에게 홍보용 해나루쌀과 쌀눈쌀을 나눠주며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홍보행사에서 선보인 당진 해나루쌀은 국내 대형마트에서 인기에 판매될 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등 해외로 꾸준히 수출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 쌀이다.

특히 해나루쌀은 엄격한 품질관리에 힘입어 5년 연속 올해의 히트



상품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달 9 일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농림식품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31일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해나루쌀의 우수성에 초점을 두고 홍보활동이 전개됐으며, 당진 흑미떡 시식행사도 함께 마련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임종섭 회장은 "농업인부터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쌀 소비촉진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 셀프웨딩·리웨딩 촬영지 인기

ք 셀프&리웨딩 사진촬영 명소 8곳 선정·발표

아름다운 꽃과 바다의 도시 태안군이 천리포수목원 등 셀프&리웨딩 사진 촬영 명소 8곳을 선정·발표했다.

군이 선정된 사진 명소는 ▲신두리 해안사구 ▲천리포수목원 ▲웅도 등대 ▲청산수목원 ▲팍카밀레 허브농원 ▲꽃지해수욕장 ▲안면도 자연휴양림 ▲나문재 관광농원 등 8곳이다.

군은 최근 커플 스스로 웨딩사진을 찍는 셀프웨딩과 리웨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따라 태안군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육성하기로 하고 내·외부 선정위원 9명이 지난 3월 30일과 31일 예비대상지 10곳을 직접 둘러본 뒤 '셀프 & 리웨딩 명소 8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람과 모래가 빛어낸 '신두리 해안사구' (원북면 신두리) 태안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해안사구로, 광활하게 펼쳐진 해변과 함께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이국적인 사막의 풍경이 일품이다.

특히, 영화 '봉이 김선달'과 드라마 '하백의 신부' 등 각종 영화와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촬영이 신두리에서 진행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서해안의 푸른 보석 '천리포수목원' (소원면 의항리) '푸른 눈의 한국인' 故 민병갑 원장이 1970년부터 정성을 쏟아 일궈낸 우리나라 1세대 수목원으로 1만 5,800여 종의 식물이 식재돼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일반인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바다와 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으며, 지난 2000년 세계에서는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기도 했다.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웅도 등대' (근흥면 가의도리) 웅도는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는 충남 유일의 유인등대섬으로, 지난 1907년 1월 서해안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대가 세워진 후 106년 간의 외부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태초의 모습을 간직해왔다.

지난 2013년 민간에 최초 개방됐으며, 동쪽으로는 단도와 가의도, 목개도, 정족도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팽이갈매기 서식지인 난도, 공시도, 병풍도와 충남 최서단 격렬비비둘기가 수평선 위로 장관을 이루는 등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팍카밀레의 성지 '청산수목원' (남면 신장리) 삼족오 미로공원을 비롯해 모네, 고흐, 밀레 등을 주제로 한 테마 정원 등이 아가자기하게 꾸며져 있으며, 수생식물원에는 수심 종의 연꽃과 수련, 물양귀비, 참조 등 희귀 수생식물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특히, 가을이면 갈대의 일중으로 인테리어 및 사진소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팍카밀레를 주제로 축제가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다.

◆어린이왕자의 허브농원 '팍카밀레 허브농원' (남면 몽산리) 국내 최대의 허브관광 농원으로 동화 속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정원에서 약 200종의 허브와 500여 종의 야생화, 150여 종의 습지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어린이왕자를 테마로 한 정원이 싱그러운 자연을 선물하며, 각종 원예체험을 비롯해 허브요리·차·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과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애틀한 전설이 전해지는 '꽃지 해수욕장' (안면읍 승연리) 남편을 끝내 기다리다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꽃지의 명물 '힐미·할아비 바위'가 유명하며, 서해안 낙조 감상의 대표적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002년과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지로 유명세를 탔으며, 올해는 같은 장소에서 4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7회 태안 세계튤립축제'가 열려 꽃과 바다의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붉은 및 안면승이 아름다운 '안면도 자연휴양림' (안면읍 승연리) 지난 1992년 개장한 휴양림으로 오직 소나무 한 수종으로만 자연휴양림을 이루고 있어 관광객들의 편안한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

토종 적송 안면승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집단 자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8년 화재로 소실돼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겼던 승례문 복원에 안면승이 사용되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섬안의 특별한 섬 '나문재 관광농원' (안면읍 장기리) '섬 안의 섬'이라는 콘셉트로 운영 중인 관광농원 겸 펜션으로 안면도 최서 전제를 펜션단지로 꾸며 매우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동화틀 실제로 옮겨놓은 듯한 아가자기한 조형물들과 정원이 있어 웨딩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다.

태안=김정환기자

태안군 외딴 섬마을 찾은 '백의의 천사'

가의도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실시... 무료검진·치료 '호응'

태안군이 의료취약지역인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소외지역 주민에게 온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보건의료원 한방의 등 15명이 근흥면 가의도리를 방문,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

다. 근흥면 신진도리에 집결해 행정 선을 타고 오전 10시 가의도에 도착한 의료진들은 가의도 지역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만60세에서 79세 사이의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표지자 무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만성퇴행성질환 관

련 의료관리를 펼쳐 관심을 끌었으며, 한방치료와 당뇨 등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와 함께 건강관 식습관 및 생활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이날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받은 가의도 주민 김모(70)씨는 "육지로 나가는 배가 한때 있어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의사분

비봉면 상습침수 우심지역 용·배수로 정비

청양군 비봉면(면장 김순복)이 안전영농을 위해 우기에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취약 농경지 3.2km구간에 대해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있다.

면은 영농이 이전까지 골짜기를 투입해 농경지 침수 예상지역의

용·배수로에 퇴적된 토사 등을 제거해 수해 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농민농사 준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수지, 관정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용수 확보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면 관계자는 "이번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영농을 위한 지속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행복한 동행' 역량강화·정보소통 마당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아산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태)는 지난달 30일,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한 동행 가족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정보소통 마당을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대구하나센터 조재희 센터장의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및 소통에 관한 강의로 1부가 진행되었으며, 정보소통마당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시간으로 2부가 진행됐다.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분야에서 공공·민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에 힘쓰기로 했다.

김윤태 센터장은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보소통마당을 더욱 발전시켜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리량주기자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세 신고

청양군(군수 이석하)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의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양군에 사업장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인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청양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청양군 외에 다른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안분해서 각각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산이 발생했다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청양=정성범기자

건강지도자 양성과정 개설

당진시, 오는 10일까지 4개 분야 20명씩 참가자 모집

당진시 보건소는 시민 건강증진에 앞장설 건강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보건소는 새로 모집하는 건강지도자를 대상으로 신성대 평생교육원과 함께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5주 과정으로 양성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도자 양성은 ▲건강도시 서포터스(20명) ▲건강밥상 지도자(20명) ▲걷기 지도자(20명) ▲금연·절주 지도자(20명)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건강지도자 양성과정은 총 32시간 교육 중 10시간의 전체 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무 교육으로 이뤄지며, 일정 기간의 자원봉사까지 마치고 수료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지도자는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보다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동정
확대간부회의

이창규 아산시청 권한대행= 3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장학증서 수여식

김홍장 당진시장=3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8년 당진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



임사회

오만영 아산시의회 의장=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회 임사회에 참석.



실무교육

한상기 태안군수=3일 오후 5시 군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직원 맞춤형 실무교육에 참석.



심의위원회

이석화 청양군수=3일 오전 9시 청양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4월중 직원 월례모임에 참석. 한 후,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제2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



아산시 아동참여놀이터 명칭공모

아산시는 2일, 용화동 711번지에 소재한 제37호 공원(아동참여놀이터)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5. 9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2017년 11월 14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에, 아산시 용화동 711번지에 소재한 제37호 공원을 아동참여 놀이터로 조성하고자 2017년 8월 관련부서 공무원, 학부모, 아동관계자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또, 2017년 9월 2차례 '아산아 놀자' 캠프를 통해 아동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참여공원 조성 후 가장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용화초등학교 학생 및 관계자, 인근 아파트 입주주민들을 대상으로 제37호 공원 아동참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설명회에서 공원 이름이 부르기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울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산아 놀자 캠프 참여 아동 및 용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7호 공원 아동참여놀이터 신규 명칭 공모전'을 실시하게 됐다.

공모전은 4월 30까지 접수해 총 10개를 선정할 예정으로 공모수상자에게는 1등 10만원, 2등 5만원, 3등 3만원, 4~10등 각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아산시는 공모전을 통해 아동참여놀이터라는 취지에 맞는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신규명칭을 선정해 부여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동고동락(同苦同樂)사업 등 사람중심·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논산시시장 황명선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2017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이행치도 5개 분야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5단계(SA-A-B-C-D)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종합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를 최고등급인 SA등급으로 평가했다.

시는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사업, 명품 교육·문화도시 건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등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1번지' 구현을 위한 공약들이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7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이행치도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는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민선6기의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이 성공적으로 순항중인 것으로 평가돼, 시민 모두가 따뜻한 '대한민국 행복공동체 동고동락(同苦同樂) 논산 실현'이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행정 ▲지역경제 ▲지역개발 ▲농업진흥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

광·체육 7개 분야에 총 98개 사업으로 90.9%(전국평균 71.24%)의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미래 100년 논산을 향해 앞으로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걸음 한걸음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실천운동은 유권자들이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민운동의 일환이다.



4·1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열려

99년 전 계룡독립만세 재현으로 호국정신 선양

계룡시시장 최홍묵은 1일 '제5회 4.1 두레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두마면사무소 광장에서 가졌다.

광복회 계룡시지회가 주최하고 두마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창섭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최홍묵 시장을 비롯한 계룡시보훈단체협의회 회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4.1독립만세운동'은 기미년 두레만세 운동을 재현하고,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있었던 계룡시 호국보훈 문화의 계승 발전과 애국선열들의 범시민적 참여 모습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기념행사에 이어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졌던 두레장터까지 행진을 벌이며 99년 전의 '두레장터 4.1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했다.

한창섭 위원장은 "이 행사를 계기로 계룡시의 호국보훈문화 역사를 널리 알리고 99년 전 계룡시민의 애국정신을 더욱 드높이 계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홍묵 시장은 "계룡시에서는 한훈선생 생가지지를 복원하는 등 독립운동사적지를 꾸준히 발굴하여 계룡시가 애국충절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면서 이 지역의 후손으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업 첫 입문은 플리마켓과 함께"

부여군, 건강한 먹거리인 로컬푸드·가공품 주 이워

부여군(군수 이용유)은 지난 30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과 함께 여성문화회관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부여 새일센터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행사로 올해로 벌써 두 번째 열렸다.

플리마켓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여성창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운영되고 있는 연중행사다. 지난해 백제문화제와 굿뜨래국화축제 등 지역축제에 참여해 판매부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아이템 발굴해 준비했다.

판매 품목은 표고버섯가루, 수제두부, 누룽지, 찹쌀고추장, 백제기정떡, 장아찌 김밥 등 다양한 로컬푸드와 가공품 등으로, 특히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 사이에서 수제두부가 인기가 많았다.

군 관계자는 "새일센터에서 여성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는데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아 이런 체험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새일센터에서는 농촌체험지도사 양성과정, 사무실무자 양성과정 등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과 봄, 부영이살림, 다문화제 등 창업동아리 3개를 운영 중이다.

계룡시 청소년 벼룩시장 발대식 가져

자원봉사센터, 봉사문화 선도·지역봉사인지 다짐



계룡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창섭)는 지난달 31일 계룡 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실에서 판매 청소년 및 학부모 운영리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벼룩시장'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봉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벼룩시장은 '모이go, 팔go, 나누go'란 슬로건 아래 지난 2013년부터 매월 1회 임시공원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 개최할 예정이다.

벼룩시장에서는 작서예 입지 못하는 중고의류와 서적, 장난감 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 기금을 조성하고 연말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환원하여 나눔과 희망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은 청소년 문화공연(클라리넷 독주,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사 선서 ▲전년도 활동영상 시청 ▲자원봉사 소양교육 ▲모듬활동 및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청소년 벼룩시장은 청소년이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작은 소비를 배우고 익히는 물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실천의 장'으로 승화되면서 계룡지역에서 귀감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TJB대전방송 세상발전 유레카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바 있다.

서천군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길 지켜드립니다

인심택시 운영협약추가체결... 4개 고등 학생 85명 택시운행 지원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2일 장항 차장 보고고등학교 교장 김석홍, 개고등학교(교장 최동우) 및 서천여인택시조합 서천군지부지부장 노

희건)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학년도 인심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처음 시작된 서천군 인심택시는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심야시간에 농어촌버스의 막차가 이른 시간에 운행 종료되어 하굣길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교통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서천고등학교와 서천여고에서는 이용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져 금년도 인심택시 운행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또한 올해는 장항고등학교와 서천여자정 보고에서도 추가 시행하는 등 총 4개교 85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총 31대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심야시간대 일반 콜운행을 포기하고 지역 학생들을 위해 관내 택시업체가 밤 늦고 나서 지역을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관내 고등학교 택시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된 서천군 인심택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54일, 2,400회 운행되었으며, 4,000여 명의 사업비를 들여 3,776명의 학생들이 하굣길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인심택시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에 해당하는 10,400원을 학생 1인당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서천=김태성기자

"홍산 문화행사에 놀러 오세요"

2018 보부상 공문제·제16회 홍산대접문화제 열려

부여군 홍산면(면장 조희철)은 오는 4월 12일~14일까지 3일간 홍산 동헌 및 시기지 일원에서 '2018 보부상 공문제'와 '제16회 홍산대접문화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부상 공문제는 사저산 팔음상무사보존회에서, 홍산대접문화제는 홍산대접문화제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개최했던 것을 올해는 홍산문화보존회(회장 이정구라

는 통합기구를 만들어 행사를 통합, 압축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특히 홍산문화보존회는 서부지역의 문화를 하나로 묶어 지역민의 화합과 지역의 소중한 문화·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4월 12일 오후 6시 홍산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홍산대접 학술토론회'를 시작으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홍산 동헌 주무대에서 본 행사가 열리고, 14일 오후 5시에 대대원의 막을 내린다.

주요행사는 13일 최영장군과 무명 장졸들의 넋을 위로하는 홍산대접체제와 저산팔음각 일대에서 보부상 공문제 참가를 위해 본소로 모여든 상단임원진과 보부상을 맞이하는 임소 영접, 14일 보부상의 시조인 백담원과 여대 임원들의 위패와 공문을 모시고 지내는 공문제례, 저산팔음김쌈놀이, 마당놀이, 보부상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접장

을 모시고 전 보부상단이 함께 귀임하는 신차영감행차다.

이외에도 줄타기, 사물놀이, 판소리, 장문놀이, 비나리, 판곡, 화성곡, 다듬이 소리, 민요, 건강체조, 노인대학 합창, 풍물단 승무복과 짝새, 동동구미리와 타령, 땃진걸스 공연, 충남국악단 공연 등 다채롭고 다양한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홍산면과 홍산문화보존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홍산 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부여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조성한다는 포부다.

'월 임대료 10만원대' 천안신방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독립유공자 포함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시행...총 4507구 공급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천안 신방 지구에 공급된다.

천안시와 LH대전충남지역본부는 총 4507구구의 신방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 2일 밝혔다.

천안신방 행복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16㎡, 26㎡, 36㎡ 세대로 구성됐으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공급물량의 80%인 360가구를,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물량의 20%인 907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천안시는 이번 공급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독립유공자 포함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공급을 시행한다. 총점의 고장의 특성을 살리고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방 행복주택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와 신방도서관이 500m이 내에 있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 교육시설, 교통인프라 등을 두루 갖췄다.

여기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경로당, 사회적 기업이 들어서며 26㎡의 22가구는 빌트인으로 가구와 가전제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기본 임대조건은 입주면적과 대상에 따라 보증금 1268만2,000원

~2,907만 원, 월 임대료 6만7000원~15만5,000원으로 주변시세의 60%~80%로 책정됐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약하거나 나천안권주거복지센터(041-537-2727) 행복주택 상담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를 발표는 7월 19일이며 입주 시기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한편, 천안신방 행복주택은 천안시와 LH가 공동 시행하는 첫 번째 행복주택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고를 받아 사업 착수 3여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천안=이동호기자

논산시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본격 '출발'

관내 청소년 대한민국 넘어 국제무대로 업그레이드

논산시시장 황명선이 추진하는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가 2일 논산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했다.

올해 추진되는 고등학교 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3박 4일 일정으로 세계 10대 경제도시인 상해를 견학, 상해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 등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견학하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한중관계를 실제로 느껴볼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중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4월 9일 쉐anghai를 시작으로 백제문화권 지역인 오사카·나라·교토를 견학, 일본의 백제문화 역사 탐방을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폭 넓은 일본의 발전상 체험 및 백제의 역사와 한일 관계를 실제로 느끼볼 수 있는 과정으로 2박 3일 간 진행된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문화해택이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인재육성을 통해 미래 지역 발

전의 원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확고한 신념으로 논산의 미래인 청소년을 창의성과 인성, 국제적 감각을 갖춘 수 있는 지역의 미래 동향으로 육성하자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중전의 지역관광과 높이문화의 폭 넓은 수혜여행의 개념이 아닌, 역사탐방, 진로탐색 등 새로운 체험학습의 장으로, 학교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 생활기록부 반영 등 대학진학 시 다양한 인센티브로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본인 부담이 어려운 학생

들은 학교충동회에서 지원하는 등 논산시, 교육청, 학교, 119안전센터,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등이 최초 기획과정부터 업체 선정과 실제 연수까지 참여해 협업의 교육공동체라는 새로운 행정모델을 제시하며, 시민을 위한 모범적 지방자치를 구현해 지방자치제도 의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다.

한편, 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 '사람중심 행정'이라는 시장철학을 반영, 2016년 전국 최초로 논산시 관내 고교 2학 과정에 포함, 생활기록부 반영 등 대학진학 시 다양한 인센티브로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논산=김태성기자

특정

논산딸기축제 행사장 사전점검



황명선 논산시장은 3일 오전 8시 30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4월 중 율례회의에 참석, 오후 2시 딸기축제장에서 개최되는 2018 논산딸기축제 행사장 사전점검.

이·취임식



최홍묵 계룡시장은 3일 오전 10시 계룡 문화회관의 전당에서 열리는 계룡시 노인회장이·취임식 참석.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는 3일 오전 10시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열리는 2018년도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개강식에

참석, 오전 11시 판교심도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심도마을 열차터널 판교도토리를 품다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에 참석.

천안시 청년일자리 창출정책 효과 봤다

지역 청년 80명 고용창출 효과 달성

천안시가 지난 2월부터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1개월 만에 51개 기업에서 청년 8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최대 6개월간 총 2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천안고용노동청과 청년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참여기업 모집했다.

이번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청년들의 채용으로 이어져 시행 1개월 만에 조기 마감되는 성공적인 성과를 얻게 됐다.

한편,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유지 지원금 1차분(1개월 후), 2차분(6개월 후) 지급 통지 후 시가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권희성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지역 청년들에 대한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개편에 발맞추어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이동호기자

서천군골칫덩이 등검은말벌 물리친다

유인액 제조기술 보급·포획기 배부로 조기방제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석희성)는 지난 30일 서천군 양방연구회 회원 7명(회장 황규환)을 대상으로 등검은말벌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급속도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외래해충인 등검은말벌은 먹잇감으로 꿀벌을 집중적으로 잡아먹고, 번식력과 공격성이 일반 토종 말벌보다 훨씬 강해 양봉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군 농기센터에서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을 통해 등검은말벌의 특성을 이용한 유인액 자가제조 활용기술과 분봉관리 요령 등을 교육하고 농가별 유인액·포획기 등 조기방제에 필요한양방자재를 배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철 등검은말벌 여왕벌 1마리를 잡으면 등검은말벌 1개 병군(2000~3000마리)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 시기적으로 지금이 방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전 양봉농가가 공동방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정

공주시민대학인문문화과정개강식



오시덕 공주시장은 3일 오후 2시 40분 고마에서 열리는 2018 공주시민대학 안전문화과정 개강식에 참석.

용역 중간보고회



김동일 보령시장은 3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오후 3시 민원상담의날 운영

평생학습센터 마을학교개강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3일 오전 10시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마을학교 개강식에 참석, 오전 11시 30분 인지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따뜻한 나눔터 이동봉사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시정상황실에서 열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참석.

민간주도 로컬푸드 센터 개장

서산시, 운산면 여미오미 로컬푸드 센터 본격 운영... 안정적 유통망 갖춰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에 순수 민간주도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시설을 갖춘 로컬푸드 센터가 들어섰다.

서산시는 2일 '여미오미 로컬푸드 센터'가 개장하고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운산하우스달래영농조합(조합장 문지선)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부지매입과 건축, 설비 등의 비용 모두 행정 보조 없이 조합원 부담으로 해결했다.

규모 200㎡의 로컬푸드 매장은 조합원을 비롯해 인근 농가들이 생산 가능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취급하는 로컬푸드 전용매장으로 운영된다.

또 170㎡ 규모의 농가 레스토랑은 지역 제철 농산물을 식재료로 동네 아낙들의 맛깔스런 솜씨를 더해 손맛 나는 정감한 시골밥상으로 손님들을 맞는다.

이로써 대농가에 비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영세 농가들은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출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뜻 있는 지역민과 귀농인 등이 의기투



합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이번에 완공을 보게 됐다.

센터가 위치한 운산면 여미리는 서산 나들목이 인접해 좋은 접근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유기농가옥, 마에삼촌불, 개심사, 뱃뚝으로 유명한 한우목장 등 주변 자원도 풍부하다.

앞으로 조합에서는 달래소스가 공공장과 견학·체험시설 등을 확충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로컬푸드 소비 확대에 주

력하고 있는 서산시도 로컬푸드 센터 운영 지도 등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산에서 순수 민간 로컬푸드 센터의 개장은 처음"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Shop In Shop 2개 매장과 전용매장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개소가 개장될 예정이다.

서산=김정환기자

금산봄꽃의 색다른 매력 발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상춘객 맞이 봄꽃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충남 금산에서는 비단고을 산꽃축제, 금산천 봄꽃축제, 홍도화축제가 색다른 볼거리로 봄꽃의 매력을 발산한다.

오는 4월 7일에는 금산천 둔치공원에서 '금산천 봄꽃 축제'가 개최된다. 건강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 어린이 트로트 대회, 행복 콘서트, 봄꽃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무대공연을 함께 펼치고, 인삼약초요리대회 등 가족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 화려한 봄꽃이미로 진행된다.

수줍은 여인네 미소를 담은 산벚꽃이 일품인 '비단고을 산꽃축제'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에서 개최된다.

개막 당일 21일에는 해마다 인기를 더해 가는 산꽃 슬래김 건강걷기대회와 숲 속 작은 음악회, 산꽃 포크송 콘서트 등이 산꽃 보는 재미를 더한다. 산꽃 포크송 콘서트에는 해바라기, 여왕스케치, 엄지애, 목비 등이 출연한다.

행사장에서는 가래떡, 고구마, 소시지 등을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덕 음식체험과 향절만들기, 이혈체험, 네일아트 등의 산꽃힐링체험이 알차게 준비된다.

남일면에서 '홍도화축제'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전국에서 홍도화를 주제로 한 축제는 남일면이 유일하다.

진분홍 꽃 물결의 홍도화축제는 홍도화 가요제를 비롯한 어린이 댄스,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과 함께 실개천 송어잡기체험, 식물가꾸기 체험, 팝콘 나누기 행사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 색다른 꽃축제를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군은 4월에 개최되는 봄꽃축제를 통합적으로 홍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봄꽃축제를 소개해 비단고을로서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한껏 뽐낼 예정이다.

금산=주연기기자



보령항 마침내 '개항(開港)'으로 지정된다

출입허가수수료 절감 및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설립 기시호

보령항이 마침내 '개항(開港)'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령항의 개항 지정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 고함해 따라 보령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25번째의 개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보령항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령화력발전소의 발전연료용 유연탄 수송을 위해 건설해 지난 1983년 8월 고정항이라는 명칭으로 무역항으로 지정됐다가, 항계를 확장 후 1995년 12월 보령항으로 개칭됐다.

현재는 고정국가산업단지(보령화력·신보령화력발전소)와 영보일반산업단지(보령 LNG터미널)에서 수입하는 발전용 연료와 액화천연가스 등을 실은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는 에너지 중심항으로, 물

동방 기준 2017년 1,989만톤)으로 전국 무역항 중 10위권 규모를 자랑한다.

'개항(開港)'은 관세법에서 규정된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출입할 수 있는 항'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을 운항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출입의 허가를 받고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보령항이 개항으로 지정되면 보령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이 간단한 입항보고와 출항허가만으로 더욱 편리하게 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입허가수수료 부담도 덜게 된다.

시는 신보령화력과 보령 LNG터미널이 본격 가동됨에 따른 수입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관세수요 증가, 신속대응 한계 등의 문제점 및 지정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개항 지정을 건의해 왔

며, 이번 입법에 고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보령항의 급속한 관세수요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과 원거리 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세관에 출장소 형태의 '보령비즈니스센터' 시설을 위한 조지와 정인 승인, 사무실 신축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세관 외에도 출입국, 검역 관련 국가기관의 보령 사무소 설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항의 개항 지정으로 무역선이 더욱 편리하게 항구에 드나들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보령항 구역 내에 예정보고 있는 보령신항 건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유치로 보령항을 이용하는 선박과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수출입 기업들의 관세행정 서비스 개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제1회 내포자연문화예술제 열려

서산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내포지역 자연문화 예술인들의 단체인 내포자연예술연합회(회장 조항오)의 주최로 '제1회 내포자연문화예술제'가 해미읍성 일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 예술제는 해미읍성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 다양한 자연문화 작품을 선보여 지역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2만여명이 해미읍성을 다녀간 가운데 수석, 분재, 서각, 난 등 4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고 품평회도 열렸다.

특히 31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테이프커팅 등 의식행사를 비롯해 충남서해가협회 '봄의 향연'을 주제로 한 서해퍼포먼스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이번 예술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이완섭 시장은 "내포지역 자연문화 예술인들이 모여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공연까지 함께 하는 이번 예술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architectural photos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EST PLAN and phone number 042-624-1204.

오늘의 하이라이트

▲역류 (MBC 오전 7시55분)



채유란김해인에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고백하는 강동빈(이재황)의 모습이 그려지며 눈길을 모았다. 한편, 인영은 준희의 사고에 대한 의심을 키워간다.

▲해피시스터즈 (SBS 오전 8시20분)

낮술에 지나치게 취해 일탈을 시도하던 진섭은 화영에게 발각되어 한바탕 호된 벌을 받는다. 자신

케이블 명화

▲특별시민 (OCN 오후 10시00분)

지금껏 본 적 없었던 대한민국 선거판의 세계 신성한 소재, 입체적인 캐릭터로 흡입력 더한다. <특별시민>은 현 서울시장 '변종구'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치열한 선거전을 그린 영화.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거야" 오직 서울만 사랑하는, 발로 뛰는 서울시장 '변종구' (최민식) 하지만 실은 어느 정치인보다도 최고 권력을 지향하며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정치 9단이다.

선거 공작의 일인자인 선거대책본부장 '심혁수' (곽도원)를 파트너로 삼고, 겹겹이 선거판에 뛰어든 젊은 광고 전문가 '박경' (신은경)까지 새롭게 영입한 변종구는 차기 대권을 노리며, 현정 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하지만 상대 후보들의 치열한 공세에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까지 일어나며 변종구의 3선을 향한 선거전에 위기가 거듭되는데...

선거는 전쟁, 정치는 쇼! 1,029만 명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또 한 번의 쇼가 시작된다!

특별 시민

에게 항상 상냥하고 너그웠던 예은이 그리워진 진섭은 술집에 예은의 집으로 찾아가는다. 한편, 형주의 고백을 받은 예은은 자신이 형주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파도야 파도야 (KBS2 오전 9시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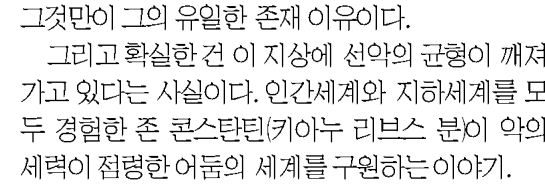
절거려야 나가 정태(정현은) 사고에 휘말려 누명을 쓴다. 복심(조아영)은 도둑으로 몰려 파초스에 끌려가는 바람에 옥빈(이경진)에게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을 듣고 만나.

▲콘스탄틴 (채널CGV 오후 8시00분)

인간의 형상을 한 혼혈 천사와 혼혈 악마가 존재하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타고난 존 콘스탄틴(키아누 리브스)은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 후 다시 살아난 그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지옥으로 돌려보내기에 나선다. 그레아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자신의 운명이 뒤바뀌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실한 건 이 지상에 선악의 균형이 깨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세계와 지하세계를 모두 경험한 존 콘스탄틴(키아누 리브스) 분이 악의 세력이 점령한 악마의 세계를 구원하는 이야기.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카카오 1588-3200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Lists broadcast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제19회 협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 성료

아산시여성회관, 2018 제2기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전국 17개 시·도 합기도 동호인 1300여명 참가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합기도 동호인 1300여명이 참가한 제19회 협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기여한 공로로 청양군수 공로패를 받았다.

대회는 ▲단체연무경기 ▲대련경기 ▲호신형경기 ▲호신술경기 ▲가력경기 순으로 진행돼 종합우승은 충청남도, 준우승은 대구광역시, 종합3위는 충청북도 합기도 협회가 차지했다.

한편 대회를 유치한 청양군 이석화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의 선두주자 청양군을 찾아 주신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청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광역시, 2018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대전시와대전광역시, 5개구 치매안심센터 공동주관



대전시와 대전광역시, 5개구 치매안심센터가 공동주관하는 "2018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가 오는 7일 오전 8시 30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다.

2018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극복을 기원하는 대국민 행사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대전시는 5개구 치매안심센터와 공동주관하며,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의 첫발을 내딛는다.

광고문의 (042)538-3030



학부모 코딩교육지도사 자격 프로그램

부여도서관, 학부모 20명 대상으로 운영

부여도서관(관장 김영심)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일 2시간씩)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지도사 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송병배기자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 베이비부머 전기제어실무과정 입학식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이인호)는 2일 대학본부 4층 세미나실에서 베이비부머 전기제어실무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기기초이론, 시퀀스제어, PLC 실습, 전기설비실습 등 240시간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기분야 기술인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금강대,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금강대학교(총장 송희연)는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지난 3월 31일(토)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거행했다.



356-B지구 중구 중앙 387 자매지구 친선방문 봉사 펼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대전) 지구 김동원 총재를 비롯한 21명의 참가단은 지난 3월 28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자매지구인 중국 심양 387 지구를 친선방문하여, 심양시내 제9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생 450명에게 준비한 기념품을 직접 전달하는 봉사를 펼쳤다.



화성면 화암리 청년회, 효와 사랑의 한마음 잔치 개최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청년회(회장 이천집)는 지난 31일 물어물체협관에서 마을 어르신 등 120여명이 참석한 효와 사랑의 한마음 잔치를 마련했다.



대전보훈청, 보훈요양원서 봄을 그리다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은 지난달 31일 충남대학교 봉사동아리 '몽개몽개', 대전봉사체험교실, 대전지방보훈청 봉사동아리 '심청이', 대전보훈요양원과함께 대전보훈요양원에 있는 보훈가족들을 위해 벚꽃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비봉면, 제15회 기관·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청양군 비봉면(면장 김순복)은 지난 1일 복지회관에서 제15회 비봉면 기관·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밭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진행

'후보자 공정경쟁 협약식' 열려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자 공정경쟁 협약식'이 지난 1일(일) 오후 5시 30분 한밭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은 유병로 교수(기호 1), 최병욱 교수(기호 2), 김명수 교수(기호 3), 이재홍 교수(기호 4), 김양순 교수(기호 5) 등 5명의 후보자 간에 이뤄졌으며, 한밭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최상규 교수, 이하 '총추위') 위원들과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이 협약을 통해 각 후보자들은 선거 관련 법규와 총추위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이번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가 대학발전 및 구성원 통합에 기여하는 축제와 화



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정책중심의 공정한 선거 운동을 실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

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총장 임용후보자 공개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를 위한 발표 순위 추첨도 이뤄졌다.

한밭대는 4월 12일 선거에 앞

서 두 차례의 후보자 공개토론회와 한 차례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토론회는 4월 4일(수) 오후 1시부터 한밭대 아트홀에서 있으며, 대학구성원들로부터 사전 접수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각 후보자들의 대학경영 능력과 공약사항을 검증한다.

2차 토론회는 4월 10일(화) 오후 1시부터 한밭대 아트홀에서 개최하며, 각 후보자의 모태발전과 상호토론으로 진행된다.

합동 연설회는 선거 당일인 4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한밭대 아트홀에서 열려 후보자별로 소견발표를 하게 되고, 이후 12시 30분부터는 투표가 이뤄진다.

이정복기자

● 동정 ●●●

여성단체협의회 회의



임순복 총청남도새마을부녀회장 = 3일 총남도청 대회실에서 개최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의 및 교육에 참석.

한서대 전애은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한서대 항공관광학과 전애은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의 '2018년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다.

전 교수는 SSCI 논문인 Service Business에 '항공관광학과 재학생들의 감성지능, 감정노동, 감정소진이 고객서비스를 위한 노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 및 항공승무원 관련 논문들을 국내 유명 저널에 게재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마르퀴즈 후즈 후인더 월드에 이름을 올렸다.

전 교수는 2014년 국제공항의 서비스 환경이 고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승무원 감성지능이 서비스 회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논문을 SSCI에 게재 하여 2014년 마르퀴즈 후즈 후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선더(BC)에 동시에 이름을 등재한 바 있다.

2008년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 교수는 국내외 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한국 항공경영학회 및 의식경영학회 등의 이사로 역임하며 다양한 학회활동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인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부장 김상현

알림

▲ 제주4.3항쟁 70주기 대전시민 합동참배식 = 3일 오전 10시, 대전역 서광장 시민분향소 ※ 제주도를 비롯해 오전 10시 전국동시합동분향 진행. -순서: 합동참배/추도사/추도무, 추도시 낭송/환화 -주최: 제주4.3항쟁 70주년 대전지역위원회, 국민주권 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제주 4.3평화 햇불의 춤 만방에 퍼져라"

백제의 고도(古都) 공주 무령왕릉 일원에서 문화릴레이 버스킹



공주대학교 무용학과 최선무용단은 지난 2일 전통무용그룹 출판과 가우컴퍼니와 함께 백제의 고도(古都) 충남 공주 무령왕릉 일원에서 "제주 4.3평화 햇불의 춤 만방에 퍼져라"란 주제로 문화릴레이 버스킹을 개최했다.

이 버스킹은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4.3에 대한 평화와 가치를 한국 무용으로 표현해 정중동, 흥과 멋, 춤에 기반을 두어 태평무와 검무, 부채춤, 정강춤과 신무용등과 마지막 무대에서는 제주 4.3의 평화를 예술로 승화시킨 장차무 '햇불의 춤'을 선보였다.

'햇불의 춤을 선보이는 4명의 젊은 출판(구명서, 정혜준, 유혜지, 김수아)은 밝은 에너지의 섬세한 표현력과 깊이 있는 실력을 겸비한

그룹으로 올해 2월 전국의 청년예술인들과 제주도청(도지사 원희룡)사에서 시작된 '제주4.3은 대한민국 역사이다' 문화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경북 구미IC 만남의 광장 문화릴레이 버스킹 등을 통해 4.3의 평화와 가치를 전통무용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이 행사를 주관하는 전통무용그룹 '출판'은 영어로 (dancestage) 지역하여 출판의 흔적 또는 다년간 지리의 뜻으로, 출판이 한바탕 추고 곳곳에는 흥과 멋의 여운을 남기고, 관객에 기억 속에 출판만의 신명난 춤을 남기기 위해 만들어져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적인 차세대 전통무용 그룹이다.

공주=정성범기자

'백석 후원의집' 초청 감사패 전달식

백석대학교, 여러 후원의집에 감사의 인사 전하기 위해 마련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4월 2일(월) 오후 2시 30분, 교내 진리관 대학혁신위원회실에서 대학을 후원하고 있는 '백석 후원의집' 대표들을 초청해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지속적인 후원으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여러 후원의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된 백석 후원의집은 유량동 '송연', 성거읍 '대명사본사', 유량동 '솔미', 신부동 '춘전집담갈비', 쌍용동 '충무횃집' 등 다섯 곳으로 현재 기금을 납부하는 업체 중 누적액 200만 원 이상, 월 1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천안=이흥호기자



충남연극제 '극단 당진' 단체 대상

우수연기상·최우수연기상·연출상 등 쾌거

제36회 충남연극제가 지난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5일간의 경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당진시 대표로 출전한 극단 당진(대표 류희만이 '아비' 작품으로 단체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당진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충남을 대표해 지난해에 이어 우수연기상(연선미), 최우수연기상(최문복), 연출상(석애영)까지 휩쓰는 쾌거를 거뒀다.

극단 당진의 류희만 대표는 "불모지였던 당진의 연극을 지역인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낙후된 현실 속에서도 오롯이 단원들의 열정과 시민들의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다"라고 감동

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출상을 수상한 석애영 상임연출은 "충남을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다가올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최선을 다해 꼭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극단 당진은 2011년도에 창립, 100회 이상을 공연하며 명실상부 당진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7년간 활발한 활동을 하며 당진시가 새롭게 충남 연극의 메카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극단 당진은 오는 14일 토요일 4시, 7시 당진 문예의 전당 소극장에서 기념공연을 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동이에스티(주)노동조합 두리봉사단

주거환경 개선 '사랑의 손길 봉사활동'

동이에스티(주)노동조합 두리봉사단(단장 조재욱)은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소재에 거주하는 정○○ 어르신 집을 찾아가 주말도 반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사랑의 손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IS동서 노동조합(위원장 황규익)과 합동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주거취약계층의 깨끗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변기와 세면대를 교체했다.

정○○어르신은 평소 몸이 불편

해 정소는 물론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으로 집안에 쓰레기와 음식물, 옷가지들의 방치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봉사단원 20여명이 참여해 화장실 변기, 세면대 교체 등 화장실개선 및 집안정리정돈,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희망의 주거지로 탈바꿈 시켰다. 두리봉사단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대투 논단



김헌태 논설고문

4월이 찾아왔다. 흔히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한다. 사실 4월에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연들이 넘치는 달이기에 하다. 잔인한 달이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죽고 다쳤던 4·19혁명, 수만 명이 희생당했던 제주 4·3 사건, 세월호의 황당한 참사로 4월에 일어났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아름다운 신록의 4월과 너무나 대비되는 사건사고들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4월이 그래서 잔인한 달이라 일컫고 있지만 이 말은 사실 그 출처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한 편의 시 구절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 T.S. 엘리엇(T.S. Eliot)의 유명한 시 "황무지(The Waste Land)"가 바로 그 출처이다. 433행이나 되는 긴 시이기도 하다. 그 시의 시작은 이렇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리얼리티를 키우고 기적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듯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딱어 싹터 주었다." 엘리엇의 "황무지"는 20세기에 들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생명력을 가진 것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한 시이다. 삶의 방향과 의욕을

4월 단상(斷想)

잃은 채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사는 현대인의 정신적 황폐를 보여 주려고 한 것이다. 비록 당초 맥락과 동떨어진 의미가 되어버렸지만 이 시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올 4월의 봄빛은 어김없이 꽃망울을 활짝 터트리며 화사함을 한껏 뽐내기 시작했다. 이에 질세라 목련꽃과 개나리도 동시에 그 자태를 드러내며 예년과 다른 순차적인 기다림을 벗어내고 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극성을 부리는 사이 어느덧 4월 꽃들은 봄의 향연을 그려내고 있다. "야! 벌써 봄꽃이 활짝 피었네!" 그렇게 감탄사를 자아내고 있다. 잔인한 4월이라는 말도 잊은 채 4월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감탄사를 연 발하기에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무거워 어찌된 잔인한 4월을 맞고 있지는 않은지 모를 일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이 규제되어 은행문턱은 하염없이 높아지고 상점과 식당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 끊어져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이다. 공무원들도 법인카드를 회수하여 쓸쓸이가 달라져 세종청사 주변에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높은 임대료에 장사까지 되질 않으니 이를 견디다 못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어디를 가나 장사가 되질 않는다고 아우성이고 인플레이션을 점점 더해가고 있어 직장인들의 봉급도 없어서 줄어드는 적이 되고 있다. 주부들의 장바구니도 예전같지 못하다. 그전처럼 마음 놓고 물건을 사지 못한다. 국민소득 3만 불이니 뭐니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너무나 경직된 서민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생명력을 가진 것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한 시이다. 삶의 방향과 의욕을

는 국민들의 심경이야 오죽하겠는가 싶다. 그래도 역사적인 일들은 잇따르고 있다. 오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 출공연단이 평양을 찾아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북 예술단 평양 공연을 두 차례 갖는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부터 이어지는 남북의 해방무드는 겹이 날 정도로 속도가 붙어 있다.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전경선에 위기감이 증폭되던 얼마 전까지의 기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금까지 이런 남북관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열광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다소 감흥이 떨어지고 있다. 남북의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지를 알 다기도 모를 정도이다. 마치 일본 아베총리를 비롯하여 일본이 보이고 있는 '뽕나무'와 닮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역사적인 순간의 시계는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올 4월이 그려내는 역사적인 사건의 전개가 자못 궁금하다. 그런가 하면 6·13 전국지방자치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은 물론 예비후보자들의 홍보도 한창 빨라지고 있다. 곳곳에 내걸린 대형 길게 그림들이 선거철임을 말해주고 있다. 선거차량들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예비후보자들이 탈락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선거판이 되고 있다. 이른바 전국공천이 중시되면서 경선을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의 낙마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 4월이 무척 잔인한 달이 되고 있다. 지방일꾼들을 뽑는 선거인데도 중앙정치의 어수선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선거판이다. 중앙의 막달정치나 품수정치까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

니 정치만큼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싶다. 신당들의 출연도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느 광역시 시장 창당대회에 200여명만이 참석하여 썰렁한 분위기까지 연출하는 바람에 중앙정치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리를 일찍 떠버리는 사태까지 빚었다.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외면당하는 현실 앞에서 한마디로 머쓱해진 것이다. 현실정치의 잔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신당을 만들어 국민 앞에 내놓아봐야 한마디로 잘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잔인한 4월이 될 모양이다. 그러나 4월을 어김없이 가고 있다. 봄꽃과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만개하고 탐스런 목련꽃이 곳곳에서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올 4월은 어느 새 핀지 모르게 다가선 봄꽃의 향연으로 평화로움이 넘친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일상을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봄은 역시 봄이다. 어김없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초목들의 모습에도 자연의 소리를 보게 된다. 이런 4월을 맞아 힘든 일상을 벗어나 잠시 여지로나 여유를 부리며 우리에게 주변을 다시 찾아온 봄꽃과 개나리, 목련꽃, 복사꽃 향기에 취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잔인한 4월을 평화롭고 화사한 4월로 만드는 것은 팍팍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의 여유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우리네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시 찾은 이 4월은 우리 모두가 삶의 방향과 의욕을 잃지 않으면서 정신적인 황폐감으로부터 과감히 탈출하는 4월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영국 시인 T. S. 엘리엇(T.S. Eliot)의 "황무지(The Waste Land)"가 그려내는 잔인한 4월을 "옥토(玉土)"라는 시로 다시 쓰며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진 4월"이 아닌 "아름답고 행복한 4월"로 바꿔보길 기대해 본다.

사설

'비긴급' 119 출동 안 한다

앞으로는 단순한 문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상황별 기준'으로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서에서 즉시 출동한다.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긴급'에는 소방관서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출동하게 된다. 긴급하지 않고 인명이나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비긴급'에는 소방관서가 아닌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하도록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정했다.

두 번째 기준은 '상황 유형'별로 나눈 것이다. 범죄제거, 동물포획, 짐승장치 개방 등 유형별 특징에 따라 출동기준을 마련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동물포획을 예로 들면 유기견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면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지만, 작은 애완견이 집을 잃고서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해도 소방관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출동대별 기준이다. 119구조대나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 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 2017년 전국 소방관서의 구조출동 건수는 80만5천194건이다. 이중 생활안전 출동 건수는 42만3천55건(52.5%)에 달한다. 이번엔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이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청년 일자리 언제까지 땀질처방만 할 건가

정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존 재직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도 나설 모양이다. 당정은 2일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재정 지원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은 지난해 중순 내놓은 청년일자리대책이 엉뚱한 역풍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신규 채용자에게 800만원의 저축예탁을 몰아준다 보니 선배 직원들과 지원금 역전 현상이 빚어져 인력수급 혼란을 부추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둘러대더니 사태가 심각해지자 보듬어 만에 보완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워낙 지원금 격차가 벌어진 탓에 역전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고용정책마다 부작용과 혼선을 드러내며 수시로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도 부처에서 쏟아낸 보완책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지경이다. 명분에만 집착해 시장과 소통하지 않은 채 불속 정책을 내놓으니 땀질처방을 거듭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월급을 대신 쟁취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당국은 추경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마련해 국가·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조소모사에 불과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재정 정책은 재정건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말이라고도 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우리 정책당국자들만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임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대중요법으로 대처하다가 고용시장을 더 꼬이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한 때다.

기고



장진미 충남여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해 점점 우주처럼 방대하고 광활하게 팽창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각종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문화의 대중화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 반면 이에 부수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해킹, 피싱, 스미싱 등 고전적인 범죄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로 진화하였고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 개인 사생활 침해부터 소소한 중고 거래 사기까지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우리는 몸소 겪어왔으며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여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4.2 데이'를 아시나요?

이렇듯 사이버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월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인 '4.2데이'로 제정하였다. 올해 4년째를 맞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데이)을 기념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전용 홈페이지(www.cyberconiest.or.kr)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이벤트 페이지를 운영하고, 사이버 범죄에 방편론즈 공모전, 선물 달기 운동,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 정책 발언대, 릴레이퀴즈 이벤트를 통해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한 예방 수칙으로 첫째 백신프로그램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둘

째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기, 넷째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제한 또는 차단하기와 같이 4가지 예방법을 담은 '4.2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극위진간(知則爲眞看)", 이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빠르고 다양하게 생겨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우리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다면, 나도 언제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 '4.2데이'를 맞아 국민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한다면 광활한 사이버 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수출, 충남 맑음 대전·세종 흐림

전년 대비 충남 21.4% 증가, 대전과 세종은 각각 13.5%, 21.6% 감소

올해 2월 충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4% 증가한 69억 8808억 달러로 역대 2월 수출 최고액을 달성했다. 반면 대전과 세종 수출은 각각 13.5%, 21.6% 감소한 3억388만 달러와 7177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대전세종 충남 2월 수출입 동향은 대전과 세종에 따르면, 2월 충남 수출은 집적회로반도체, 보조기억장치, 석유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무역협자 규모 역시 40억8655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흑자규모(32억4409억 달러)를 넘어선 동시에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전국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미국(-7.6%)으로의 수출이 다소 감소했으나 중국(+14.8%), 일본(+92.8%), 대만(+67.3%) 등 여타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베트남(48.0%),

인도네시아(154.7%) 등 신흥국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의 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3억388만 달러, 수입은 9.9% 증가한 2억8581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1807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달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 주요 품목 중 축전지(+179%)와 펌프(+14.2%), 농약(+241.2%)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연초류(-34.0%), 병방기(-202%), 제육기(-49.1%) 등의 수출은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대전의 3대 수출국인 미국(-10.5%), 중국(-29.5%), 베트남(-23%)으로의 수출이 모두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가운데 태국(+206.0%), 러시아(+85.8%), 말레이시아(+193.7%)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의 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한 7177만 달러, 수입은 17.5% 증가한 1억1182

만 달러, 무역수지는 4005만 달러 적자로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인쇄회로(+15.2%), 타일 및 도자기 제품(+17.8%), 화장품(+61.6%)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지난해 수출 2.3위 품목인 평판디스크 레이(-62.3%)와 자동차 부품(-25.3%)의 부진이 전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40.9%)과 일본(-38.5%), 멕시코(-34.3%)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미국(+7.2%), 대만(+68.8%)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 대전세종충남본부 김경훈 팀장은 "최근 한·미FTA 개정협상이 원적적 합의에 도달했고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지역별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대전 동구 흥룡마을가마놀이재연행사 7일 열려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7일 기양2동 더퍼리길(동대전로248번길) 일원에서 제13회 흥룡마을가마놀이재연행사와 벚꽃축제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흥룡마을가마놀이재연행사는 흥기를 맞은 처녀가 적기에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내용으로 약 300여 년 전부터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의 일종이다. 흥룡마을가마놀이보존회(회장 송덕번)가 주관하며 동구청, 기양2동 주민자치회 등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만개한 벚꽃과 함께 주민 화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행사의 진면목도 유감없이 선보일 전망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트랙스밴



드의 음악공연을 시작으로, 태권도, 댄스스포츠, 난타, 밸리댄스, 빙고를 합창단 공연 등의 다채로운 식전공연으로 분위기를 서서히 달구게 된다.

오후 1시 30분 가마놀이 재연행사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가마놀이 재연을 통해 신부를 태운 가마를 둘러싸고 풍물단의 장단에 맞춰 관객들을 포함해 모든 참여자들이 한바탕 흥겹게 어우러지게 된다. 이후에는 관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사로잡으며 벚꽃축제의 대미를 성대하게 장식할 노래자랑 행사가 꾸민 경품과 함께 2시간 동안 펼쳐진다. 이밖에 행사장에서는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송덕번 보존회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의 멋에 현대까지 이어지는 마을공동체의 끈끈한 정과 화합을 담아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계승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기양2동과 동구는 물론이고 대전 대표의 전통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요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바른신론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번호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공고 제2018 - 2호

2018년 석문지구 간척농지 임대공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석문지구 간척농지에 대한 임대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대상

구분	임대구획 번호	토지소재지(읍.면)	필지수	면적(m)	비고
가. 피해농업법인 임대구역	수도좌8~36구획	석문, 송산면	311	5,677,777.9	- 일반농업법인 임대신청 불가
나. 일반농업법인 임대구역	수도좌1~7구획	석문면	71	1,379,697.9	- 피해농업법인 임대신청 불가
다. 타작물 임대구역	타작물1~9구획	송산면	99	1,724,093.0	- 피해, 일반법인 임대신청 가능
계	45구획	2개면	481	8,781,568.8	

2. 임대구획별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가. 피해농업법인 임대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석문간척지 「매립지 등 관리·처분계획」 공고일(2018.03.19.) 이전에 설립된 법인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 영입소를 둔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20인 이상이며, 조합원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구성원이 20인 이상이며, 농업인 출자자분이 1/10 이상이어야 함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 농업인은 각 1세대당 1인만 인정함

가. 피해농업법인 임대구역

- 피해농업법인은 당해 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로서 당사자 확인은 당해 간척사업 피해보상금 수령명부에 등재된 자료만 확인하며, 피해농업법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상속은 배우자만 인정하고 1세대당 1인만 인정함
- 해당매립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어 보상금을 수령한 농업법인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총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함

나. 타작물 임대구역

- 타작물 제재법인은 조사료의 경우 전분장비(근조기, 펄핑기 등)의 구비 및 판매처를 확보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타작물 제재법인은 임차신청서에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의 임차목적(제재작물)을 자세히 기입하여야 함

3. 신청방법

- 가. 법인 대표자는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공고에서 요구한 신청서류 및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당해법인의 규모(구성원의 수)에 해당하는 구획수를 당해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구역 내에서 선택하여 매립지 등 임차신청서에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 후 임차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1구획 20ha, 최대 60ha

- <표1> 피해농업법인 임차				- <표2> 일반농업법인 임차				- <표3> 타작물제재 임차			
임대구획수	법인규모별 신청가능면적(ha)	신청가능구획수	신청가능구획수	임대구획수	법인규모별 신청가능면적(ha)	신청가능구획수	신청가능구획수	임대구획수	법인규모별 신청가능면적(ha)	신청가능구획수	신청가능구획수
29	20~39인	20	1	7	20~39인	20	1	9	20~39인	20	1
	40~49인	40	2		40~49인	40	2		40~49인	40	2
	50인 이상	60	3		50인 이상	60	3		50인 이상	60	3

- 나. 임차신청 자격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위 <표1, 표2, 표3>의 임대구획(피해농업법인, 일반농업법인) 기준에 의거 구획번호를 확인 후 법인규모(조합원) 기준에 맞도록 희망하는 해당 구획에 신청하여야 함.

- 다. 임차신청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지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구성원 중 2개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중복 가입하여 임차 신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1세대당 1개의 법인만 선택하여 임차신청 하여야 하며, 중복가입 구성원의 배제로 인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의 임대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임차신청의 배제 또는 임대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대대상자 결정을 취소함.

- 법인선택결정을 하지 않은 피해 농업법인이 다수의 법인구성원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임대신청 이후 발견될 경우, 중복 가입자는 임대자격심사에 한하여 어느 법인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임차신청서 소속 구성원 중 해당지구 피해 농업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농업법인 1인당 1개의 법인을 선택 임차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복가입 구성원 배제로 인하여 피해농업법인 풀로 구성된 법인이 임대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신청을 배제하며, 임대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동 사실

확인될 경우에는 임대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임차신청의 배제 또는 임대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해당법인 구성원 전체의 자서 및 법인선택결정서를 정구하여 임차신청을 하여야 함.(피해농업법인, 일반농업법인 모두 해당)

- 라.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목적사업에 농업생산이 포함되지 않은 법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4. 신청기간 : 2018년 4월 4일 - 4월 13일(평일 09:00부터 18:00까지)

- 가. 신청서 교부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1층 대강당)
- 나. 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1층 대강당)
- 다. 신청서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 내(09:00시~18:00시, 토·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5. 출자금(자본금)의 평가 및 인정기준(아래 출자금을 합산하여 평가)

- 가. 출자금이 부동인 경우 해당 부동인이 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시지가로 환산한 농지가격(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함.
 - 나.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신청일 현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상 잔고금액을 적용함.
 - 다. 출자금이 농기계인 경우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에 등재된 출력문과 기타 회외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산명세표에 의뢰해, 해당 농기계의 갑상가격액을 공제한 잔존가액을 출자금으로 인정함.
- <잔존가액 산정방법 : 취득가액 - {취득가액×경과년수×연간상각률(1/6)} >

6. 신청서류

가.	매립지 등 임차신청서 1부 [중사 소정양식 별지 제4호 서식]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 정관(조합원 또는 주주명부 포함) 및 출자 회피책 사본(원본제시) 각 1부
마.	출자금 확인 증명서류(해당법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제출)
바.	출자금이 부동인 경우 : ① 법인명의로 부동인 등기부등본(등지일 1부)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인 지등
사.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 ① 신청일 현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1부
아.	출자금이 농기계인 경우 : ①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을 출력한 또는 출자자산명세표 1부
자.	출자한 농기계의 인세유류 관리대장(농림부발급)
차.	법인농업법인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간척지이용경과확인 신청서(영농시설 인건주연(0)확인서 첨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카.	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전부 제출하여야 함
크.	법인 중복가입 배제 자서 및 법인선택결정서 1부 [중사 소정양식 별지 제4호 서식]
거.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지참
구.	법인인감도장
계.	조합원(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증본

구분	비고
가. 피해농업법인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해농업법인을 임차하는 서류 1부 나. 임차서류가 없는 경우는 주소변동 내역이 전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다. 피해농업법인은 당해 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로서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피해농업법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상속은 배우자만 인정하고 1세대당 1인만 인정함. (피해농업법인 중 배우자가 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피해농업법인의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선정방법

- 가. 피해농업법인 임대구역은 위 제3항 가 <표1>의 구획번호, 법인규모(조합원수)별, 신청가능면적, 구획수를 참고하여 "피해농업법인은 피해농업법인임대구역"에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임차자를 결정(같은 구획에 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 나. 일반농업법인 임대구역은 위 제3항 가 <표2>의 구획번호, 법인규모(조합원수)별, 신청가능면적, 구획수를 참고하여 "일반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 임대구역"에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임차자를 결정(같은 구획에 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 다. 타작물 제재구역은 위 제3항 가 <표3>의 구획번호, 법인규모(조합원수)별, 신청가능면적, 구획수를 참고하여 "타작물 제재 임대구역"에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임차자를 결정(같은 구획에 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 공개추첨 순서는 구획별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함

8. 임대차료 산정기준

임대차료는 계약 체결 시 계약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가. 고정임대료

- 년간 임대료 산식 = 쌀 수확량(kg) × 계약면적(m) × kg당 쌀 가격 × 시·군별 지표(△P) × 연차별 율(%)
- 쌀 수확량(kg)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해당 시군 논벼 생산량(정곡, 92.9%) 중 최고 및 최저 수확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도 10ha당 평균 수확량.
- kg당 쌀 가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서 전년도까지 최근 5년간 가격 중 최고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도 수확기 평균 쌀 가격

나. 변동임대료

- 년간 임대료 산식 = 쌀 수확량(kg) × 계약면적(m) × kg당 쌀 가격 × 시·군별 지표(△P) × 연차별 율(%)
- 쌀 수확량(kg)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시군별 논벼 생산량(정곡, 92.9%) 기준자료(11월 25일 기준).
- kg당 쌀 가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전국 평균 쌀 가격 기준자료(11월 25일 기준).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수도좌	12.7	15.6	16.6	17.3	18.0
수도좌 외	-	1.5	1.6	1.7	1.8

9. 계약조건

- 가. 일시 및 장소 : 따로 정하여 통보
- 나. 임대(계약)기간
 - 수도좌(논벼) 제재 신청법인 : 3년
 - 계약면적의 30% 이상 수도좌 작물로 계약시 잔여 수도좌 계약면적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음.
 - 타작물 제재 신청법인 : 5년

10. 유의사항

- 가. 매립지 등 임차신청서 양식과 임대구획도면 및 토지구획(면적)조서는 임차신청 접수장소(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문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z.or.kr),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저소 게시판, 당진시청-읍·면·동 게시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임차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부 신청자에게 있음.
- 나. 법인 중복가입 배제자서 및 법인선택 결정서를 임차신청 접수장소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서 사전에 수령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임차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임차신청서-각서 및 법인선택결정서의 내용 기록 잘못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신청법인에게 있음.
- 다. 임차신청기간 종료 후 경합된 구획은 신청 임차법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여 추첨하며, 최종 임차인으로 선정된 법인을 확정하여 통지함.
- 라. 임대농지의 무단전대, 농작업의 전부위탁, 경작권 양도 등 임대계약서에서 정하는 위약금 납부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법인(소속구성원이 가입한 다른 법인 포함)은 금회 및 향후 임대 대상자에서 제외됨.
- 마. 피해농업법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계약 기간중 경작권 무단전대 또는 양도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법인에 소속된 피해농업법인 전체에 대하여 향후 피해농업법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바. 가급적 신청구획이 연결 되도록 신청하시기 바람.
- 사. 임차법인은 법인 운영상황, 영농일지, 회외록 등의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정하는 경영실태실명 업체의 방문 및 자료요구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아. 임차법인은 계약서에서 정하는 자료 등 공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함.
- 자. 정부정책에 따른 임대차료 산정기준 개정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차.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매립지등 임대관리지침」 등에 의함.
- 카. 임대차료 감액 및 감면신청은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수확기 이전에 신청해야 함.
-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351-918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8년 4월 3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인)